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2574.82 (+37.22)	729.49 (+7.99)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2.550 (-0.010)	1452.30 (-5.90)



수출·내수 등 경제지표 곳곳 빨간불... 불황터널 갇히나

⚠ 긴급점검 이제 내리막길인가

건설 부문이 긴 시간 불황에 빠져 있고 제조업 전반이 어렵다는 수치가 쏟아진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속속 나오는 경제 지표에서 한 줄의 긍정적 신호나마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고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가는 우려까지 나온다. 좀처럼 혼돈을 벗어 나지 못하는 정치환경, 이례적 수준의 고환율을 비롯한 미국발 악재 등과 마주한 한국 경제의 곳곳을 들여다본다.



이달 10일 서울 시내의 한 상가건물이 공실로 방치돼 있다. /뉴시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고환율·저성장 고착화 우려
탄핵정국도 불확실성 더 키워
기업경기 전망 최장기 '부진'**

- 글 쓰는 순서 -

1. '피크 코리아' 그림자 드리운 韓 경제
2. 경제는 심리... 모든 경제주체 위축
3. 경제 이끌 기업들 "앞이 안 보인다"
4. 소비시장 주체 가계 "살 돈이 없다"
5. 리더십 없는 정부 "백약이 안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분기별로는 이따금 역성장도 나온다. 우리 경제엔 저성장이 이미 고착화했다. 또 원·달러 환율이 무려 석 달 넘게 1400원 선을 웃돌면서 수입원자재를 끌어다 생산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산업 생산·소비·투자 등 3개 부문 모두가 줄어드는 현상도 최근 수년간 빈번하다.

수출 기업들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도생을 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내수 경기는 상당 기간 침체돼 있다. <관련기사 3면> 정치를 둘러싼 환경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연속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개월 내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 취소·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와도 관계없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 1심 선고 전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

고 변호인단·정치권 인사들과 임의로 만날 수 있다. 법원의 최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1~2년 내지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정부·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지표들 속에서 향후 전망과 관련한 긍정적 신호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들의 생산이 줄었고, 특히 제조업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안전 고용 상태에서 버티는 청년층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와 맞물려 기준금리가 계속 치솟았다. 이 같은 고금리는 기초체질이 취약한 경제분야 곳곳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초래했다.

지난달 20일 한국경제인협회 발표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를 보면 올해 3월 BSI 전망치가 90.8에 그쳤다. 2022년 4월부터 36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한 것이다. 역대 최장기 부진 기록을 매일 경신 중이다.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긍정적 전망을,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을 가리킨다. 분기별로 보면 경기전망 회의론이 더 짙게 나타난다. 올해 1분기 기준 BSI 전망치는 87.5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내 집 마련에 딱 맞는 생각
퍼스트홈론 주택담보대출

최저 연 **3.4%** 최고 연 **4.7%**

기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LTV60%기준

가계대출 한 달새 4조 꺾음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4조 3000억원 증가했다. 새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본격 재개되고 신학기 이사 수요가 겹치며 지난해 11월(5조원) 이후 3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5조원 증가했다. /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4조 3000억원 증가했다. 새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본격 재개되고 신학기 이사 수요가 겹치며 지난해 11월(5조원) 이후 3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5조원 증가했다. /뉴시스

유산 물려받은 만큼 낸다 상속세 75년만에 대수술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정부가 1950년 도입 후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수술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여러명에게 과세표준이 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과세 방식, 과세 대상, 공제 등을 새로운 제도에 맞게 개편한다. 과세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기준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현행 세제에서는 30%의 세율(5억원 일괄공제 가정시)이

적용돼 2억4000만원 정도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 받으면 세율은 20%로 낮아지고,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0이 된다.

과세 대상도 정비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전세계 재산에,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라도 상속인이 거주자면 전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실제로 납세하는 인원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6.8%밖에 안 되지만, 유산취득세의 전환에 대해서는 3분의 2 가량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韓 철강 면세쿼터 폐지... 축산업도 살얼음판

트럼프, 철강 25% 관세 발효 韓, 상호관세 앞두고 긴급 대응 美, 소고기 연령제한 해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관세전쟁에 본격 참전하게 됐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방침이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주장한 바 있어 관련

국내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는 4월 2일에는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가 발효될 예정으로 이는 한국 경제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 측에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며 이번 주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 DC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업도 관세압박에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달 13일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불공정 관행 등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8년 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유통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일본·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해 "미국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협의를 통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양국 간 과학에 기반한 무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메트로 한줄뉴스



- ▲ 거리로 나가 총공세하는 야당... 의원 각자에 맡기고 신중한 여당
- ▲ 박찬대 "심우정, 국민 원성이 취급하나... 즉시 항고 결자해지해야" /사진 뉴시스

- ▲ 권성동, 野 '이재명 암살 제보' 주장에 "정치인 테러 있어선 안 돼"
- ▲ 여, 선관위 '채용 비리' 재차 난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 경호처 "인천공항보안 사장 경호처 출신 내정설 사실 아냐"
- ▲ 한미 해병대, 연합 소대 편성해 산악작전 등 훈련 실시

“차액가맹금 돌려달라”... 프랜차이즈 업계, 법적분쟁 확산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분쟁 법원, 가맹점주들 손 들어줘 치킨·피자 등 유사소송 잇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여 받는 ‘차액가맹금’을 돌려싼 법적 분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치킨·피자·커피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본사는 브랜드의 품질 유지와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이 특정 품목을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취하는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거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피자헛 본사가 21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피자헛 가맹점주 대표단

지난 1월 bhc·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총 744명 반환소송 롯데 슈퍼·프레시, BBQ 점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나서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점주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피자헛 본사가 21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소송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1월, bhc치킨 가맹점주 327명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각각 bhc와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교촌치킨 점주 247명도 가맹본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들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 6일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 점주 68명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6800만원 규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굽네치킨, 두점, 파파존스, 푸라닭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다. 지난해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으며, 본사가 매달 일정 비율의 로열티(총수입의 6%)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차액가맹금을 취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사전 합의가 없었고, 점주들이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의 사례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와 다르다”며 “대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하로 책정하여 점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 법적·사회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도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차액가맹금의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비율은 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소송이 계속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을 제한하면 본사는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것이고, 오히려 다른 면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ul.co.kr〉

반도체 연구직 특별연장근로 3→6개월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정부·여당 ‘반도체특별법’ 불발에 특례 신설... 6개월 추가연장 가능 야당, 타 분야 근로시간 확대 우려

반도체 연구직에 최대 주64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연구개발업무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현행 주 52시간 근로에 더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그러나 회당 인

가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추가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이 힘들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자,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우선 강구하기로 하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분야 근로시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신설, 필요에 따라 현행(3개월 단위 추가연장) 제도와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은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 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한다. 현행 1회 3개월 인가 선택시엔 3개월 후 재심사를 받는 대신, 계속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추가 인가를 위한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되고, 인가 사유, 인가 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근로시간 연장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만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가칭’)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여야 입장차에 ‘반도체 특별법’ 무산 산업의 특성 고려해 특례 신설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핵심인력 자유롭게 연구여건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 ‘환영’... 조속한 입법 요청 “반도체 연구개발역량 강화 방안 연구인력 역량 키울 수 있게 해야”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만큼 주 52시간



예외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도 논평을 통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금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환영의 뜻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경총은 “이번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서예진·양성운 기자 syj@

제조업 수출·내수 18개월 새 최대폭 감소

>> 1면 ‘긴급점검, 이제 내리막...’서 계속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수출용 출하가 전월대비 무려 10.3% 곤두박질쳤다. 내수에서도 2.4%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 합쳐서 6.2% 줄었는데 이는 최근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재고용(출하 대비 재

고) 역시 110.1%로 전월보다 6.5%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월에도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후퇴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산업생산이 2.7% 줄었는데 그중 기계장비(-7.7%)와 전자부품(-8.1%)에서 후퇴의 폭이 컸다. 올해 1월 설비투자는 14.2% 감소했다. 기계류(-12.6%)와 운송장비(-17.5%) 등이 전반

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6%만큼 뒤걸음 질렀다. 각 가구는 특히 의복 등의 준내구재(-2.6%) 소비를 줄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업황은 바닥을 못 벗어나고 있다. 지난 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 명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건설기성’ 통계는 지난 1월 전년동월 대비로 27% 가량 급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 日 구조적 문제 답습... '잃어버린 30년' 재현되나

▲ 긴급점검 이제 내리막길인가

고부가산업 중심 구조개편 지지부진
고령화 지속... 성장 잠재력 떨어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힘 모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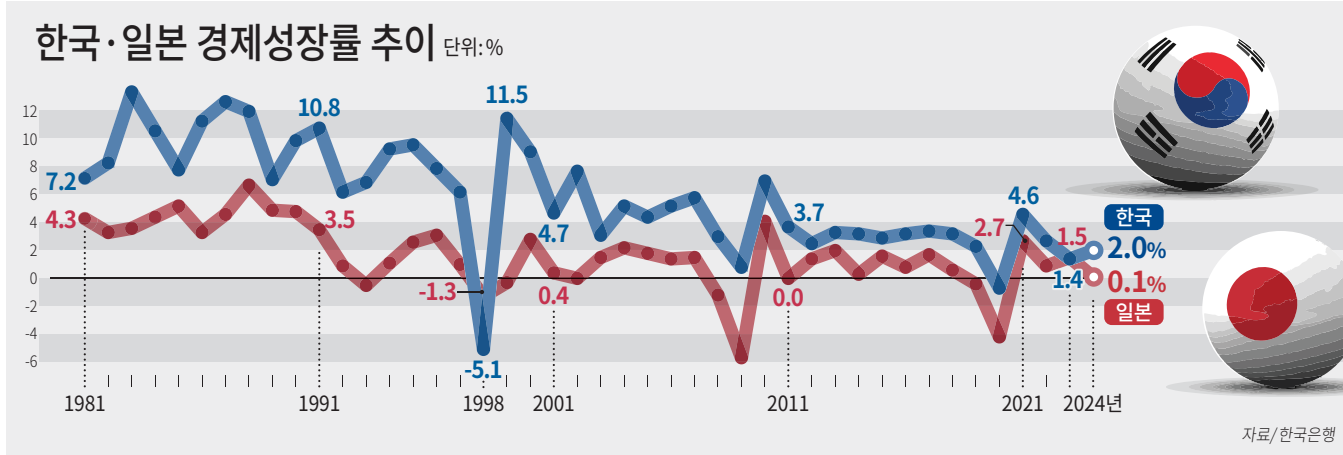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에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은 전혀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며, 사회에서 언제 배제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의 풍요로움은 실은 뿌리가 없는 사상누각(沙上樓閣·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멀쩡해 보이지만 토대나 기초가 부실한 존재)에 불과하다."(테루오카 이쓰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1980년대 말 거품경제가 꺼지기 직전, 일본사회는 이 책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잃어버린 3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졌다.

198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던 서독과 일본에 대해 환율의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일본 엔화는 실질환율 기준으로 미국 달러 대비 40% 평가 절상됐다.

당시 일본은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거품이 꺼질 즈음 올린 금리는 가계·



기업의 부채로 이어져 내수 침체를 이끌었고, 침체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파악한 정부는 재정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쓰며 부채를 키웠다. 그 당시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1980년 8.9%에서 1990년 11.9%, 2000년 17% 2010년 22.5% 2020년 28.4%로 늘었다. 1980년대 고령화 사회, 2010년 초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출산율은 1980년대 1.75명에서 2000년 1.36명→2020년 1.34명으로 줄었다. 경제를 이끌 노동력(경제활동인구)이 줄어드는 가운데 되레 부채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주력 산업의 쇠락과 생산성 저하 문제도 한 몫 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행된 미·일 반도체 협약으로 성장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5년께 미국을 능가하자 덩핑과 진입장벽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10여 년에 걸쳐 체결된 협약들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것이다.

◆ 韓, 정착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1.9%)과 비교해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10.1%에서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5%, 2024년 2%

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전 만큼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0.8%, 2020년 15.7%, 2024년 19.2%를 기록했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올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75명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돌고 있다.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출생률은 2024년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더딘 상태다.

한국은 1960년대 국가주도 산업화로

제조업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4%)의 두배에 달한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상위 13대 품목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 중에서도 61.8%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로 수출범위를 확대하면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후진적인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한국 57%, 일본 69.5%, 독일 62.9%, 미국 77.6%, OECD 평균 71%다. 한국 내 일자리의 70%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데 반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열악한 생산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진입했다고 지적한다. 피크코리아는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지난 30년간 대통령 임기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씩 대세 하락해 왔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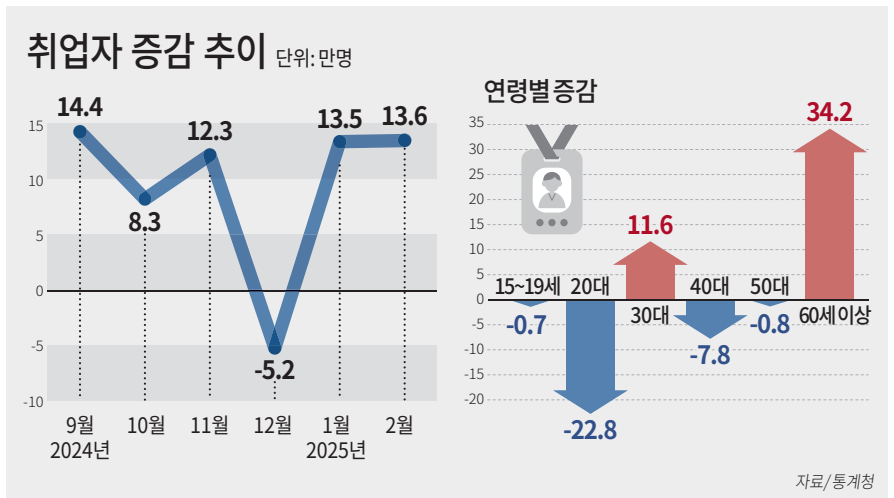
15~29세 취업자 급감... 청년층 '쉬었음' 인구 50만명 돌파

무너지는 고용시장

지난달 청년층 확장실업률 17%
기업 경력직 선호 경향 등 영향

일할 능력은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층 인구가 지난달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대에 달했다. '더 나은 곳에 취업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그냥 쉬는 것이다. 15~29세 취업자수 감소 폭(-23만5000명)은 4년 1개월 사이 가장 컸다. 또 지난 2월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29세 이하, 40대, 50대에서 감소하는 등 60세 미만 중 유일하게 30대만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6000명(0.5%) 늘었다.



그러나 세대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취업자 수는 15~29세 나이대에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7%(-23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

다. 40대(-7만8000명, -0.6%)와 50대(-8000명, -0.1%)에서도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30대(+11만6000명, 1.1%)와 60세 이상(+34만2000명, 0.9%)에서는 늘었다.

용 증가 등도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건설업(-16만7000명, -8.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만4000명, -5.4%), 제조업(-7만4000명, -1.7%), 도소매업(-6만5000명, -2.0%)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 6.7%),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8만명, 5.7%), 정보통신업(+6만5000명, 5.9%), 공공행정·국방및 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3.0%), 금융및보험업(+2만9000명, 3.8%) 등에서는 늘었다.

도소매업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째, 건설업은 10개월째, 제조업은 8개월째 취업자 감소세를 지속했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3000명(1.4%), 임시 근로자는 3만6000명(0.8%) 증가했지만 일용 근로자는 9만2000명(-10.5%)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한상의,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 조세제도 개선 촉구

상법 개정안 도마위

정부·국회에 개선과제 건의서 제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정부와 국회에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 취지에 대해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에서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주주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 5% 세액공제' 신설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

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대기업은 현재 법인세 외에도 추가로 20%의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 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배당도 투자·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최고 45%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금융소득세 중합과세를 폐지하고 9%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도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처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현금 환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는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이어서,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자 상태에서는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프랑스처럼 미사용 세액공제를 제삼자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정의선, '수소 질주' 본격화... 넥쏘후속·사업확장 승부수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 수소사업 정관에 명시
울산공장에 연료전지 공장 건설
넥쏘 후속 '이니시움' 출시 임박
한·일 수소 협력 네트워크 확대

'수소에 진심'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수소사회실현'을 위해 속도를 높인다. 정 회장은 국경을 초월한 활동을 벌이며 수소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일본과 손잡고 현지 수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서는 수소전기차(FCEV) 넥쏘 후속 모델 출시 준비와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공장 건설 등 글로벌 수소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수소 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정관에 수소 사업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소 관련 사업의 다방면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가 올해 울산공장에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하이드로젠 웨이브'에서 발표하는 모습.

이 공장은 현대차가 국내에 처음 구축하는 수소연료전지 공장으로서, 울산공장 내 변속기 공장 부지에 들어선다. 올해 착공해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신형 FCEV '이니시움'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출시한 FCEV 넥쏘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 모델로 글로벌 1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왼쪽부터), 전동화에너지기술연구소장 김창환 전무, 현대제네시스글로벌 디자인담당 이상엽 부사장, 차량개발2담당 정진환 전무가 지난해 10월 31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진행된 'Clearly Committed: 올곧은 신념' 행사에 공개된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위 수소차 업체의 기술을 집약해 65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할 전망이다.

'이니시움'을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만큼 같은 부지 내 구축될 연료전지 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차 핵심 부품인 수소연료전지를 차량과 함께 생산하면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24조3000억원 국내 투자 중 상당부분(11조5000억원)을 전동화와 함께 수소 시스템에 투자하며 친환경 미래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수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0일 일본 내 수소 협

력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일의원연맹 방일 행사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유기적인 수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차원의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과 수소시장 확대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소 기술 국제 표준을 개발·정립하고 수소 생산 기술 실증 사업과 수소 관련 부품 도입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은 수소차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밸류체인 최적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수소전기차 시장은 차량을 판매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로 생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환경과 에너지 등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부분에서의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선 회장은 수소사업의 명확한 비전을 소개하는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에서 "현대차그룹이 꿈꾸는 미래 수소사회 비전은 수소에너지를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나'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수소사회를 2040년까지 달성하려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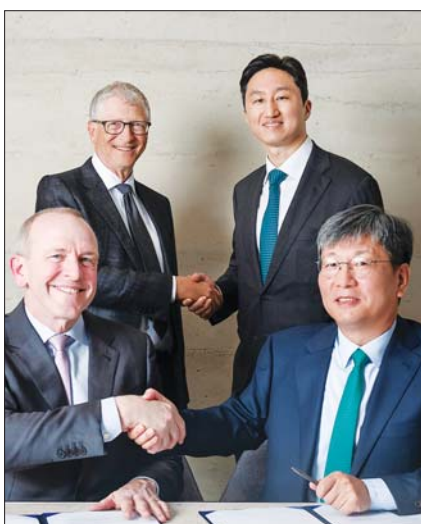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HD현대, 나트륨 원자로 공급망 확대... SMR 시장 진출 가속

빌 게이츠와 소형모듈원전 개발 맞손
SMR 상업화 돌입... 제조 기반 구축
나트륨 원자로 공급 능력 확대 추진
차세대 원자로 시장 성장 기회 창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가 해양에너지 혁신을 위해 손을 잡았다. '바다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의 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정 부회장의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HD현대는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사호·HD현대미포)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사 강점 결합해 SMR 개발·제조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왼쪽 왼쪽부터)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 원광식 HD현대 해양에너지사업 본부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의'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 부회장을 비

롯해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트륨 원자로는 테라파워에서 개발한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다. 고속 중성자를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소듐)으로 냉각해 전기를 생산한다. SMR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의 완성도가 높으며 기존 원자로 대비 핵폐기물 용량이 40%가량 적은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의 우수한 생산기술력과 테라파워의 첨단 SMR 기술을 결합해 나트륨 원자로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상업화에 나선다. 특히 HD현대는 나트륨 원자로에 탑재되는 주기를 공급하기 위해 최적화된 제조 방안을 연구 및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트륨 원자로의 초기 실증 프로젝트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에

필요한 제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협력... "SMR 상업화 돌입"

HD현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에 사업에 본격 뛰어든 것은 지난 2022년이다. 당시 중간 조선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2022년 기준 약 425억원)를 투자하기로 하면서다. 빌 게이츠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풍부한 무탄소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테라파워를 설립해 SMR의 개발과 공급에 나서고 있다. 양사는 해상원자력발전과 원자력 추진선박 분야의 기술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투자 이후 HD현대는 테라파워와 사업 협력 논의를 지속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미국에서 열린 'CES 2023' 자리에서도 크리스 르베크 테라

파워 CEO 등 경영진을 만나 SMR 공동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앞서 HD현대는 지난해 12월 테라파워와 첫 나트륨 원자로에 탑재되는 원통형 원자로 용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휴스턴에서 SMR 기술을 적용한 1만5000 TEU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을 최초 공개했다.

HD현대중공업 원광식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은 "HD현대가 제조업 분야에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앞선 기술력이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솔루션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美 공급과잉 해소... 韓 석화, 반등 속 신기술 경쟁 점화

美 ECC 증설... NCC 업황 회복 기대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新기술 주목

미국의 에탄분해설비(ECC) 증설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공급 과잉으로 위축됐던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NCC(나프타분해설비) 업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NCC 기반의 기존 공정과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 방식 간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석화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탄가스 분해 에틸렌 생산설비(ECC)의 대규모 증설이 올해를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NCC를 주로 사용해왔다. 미국은 저렴한 천연가스를 활용해 ECC 가동 규모를 확대해 왔고 이에 공급 부담과 원가 경쟁력 차이로 국내 석화 업체들은 수익성이 지속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업황 회복과 함께 NCC 중심의 기존

공정과 새로운 기술 간의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NCC 공정을 활용하는 대표 기업인 롯데케미칼의 회복이 가시화되면 업황이 살아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처럼 업황이 개선되는 구간에서 각 사의 기술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에틸렌 수급 개선 속에 유가하락 수혜 기대감이 높아져 롯데케미칼의 적자 폭이 1분기부터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맞물려 에쓰오일이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에 총 9조 258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석화 스텝 크래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초 샤힌 프로젝트는 NCC의 경영환경 악화로 주목받지 못했다. 또한 정유사의 대규모 석화 설비 증설이 향후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도 에쓰오일의 TC2C 시설이 상대적 원가 우위와 높은 자체 발전비중 등을 무기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T

C2C는 원유에서 직접 석화 원료로 전환하는 신기술이다. 에쓰오일은 이를 통해 정유에서 석화 제품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갖춰 수익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석화기업들이 중국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신기술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인도의 화학 제품 수요는 지난 2020년부터 연평균 9%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인도 내 생산량만으로는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현정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與 蔣 隆 ‘대권행보’ 지속... 核무장론·4년 중임제·尹 승복 강조

美, 美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도 “협상카드로 조건부 핵 무장 필요”
韓 “4년 중임제·양원제 도입해야”
안철수 “메시지로 유혈사태 방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여권 잠룡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의 장외투쟁 기조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 재판소 앞에서 24시간씩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칫,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극우 세력에서 기대하는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도 여권 잠룡들은 대중에게 아젠다를 던지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북한, 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조

건부 핵 무장이 협상카드로 필요하다면 서 안보를 정조준했다.

미 행정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

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기존연설을 하며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에 긍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될 경우 NPT(핵확산금지조약) 제재를 받아야 하고 한미동맹 균열, 대북관계 악화 등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호응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여권 잠룡들의 행보로 분석하기도 한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콘서트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압박에 대구 북콘서트를 순연한 한 전 대표는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임기를)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고 약속하고 87년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 후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주

요 투자처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 아젠다도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 너무 높은 나라다. 대단한 강점이 있다”라며 “이런 나라에선 규제를 완화해서 크립토크런시(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당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현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尹 석방’에 전열 가다듬기

李, 비명계 인사 만나 ‘내란종식’ 한목소리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
조기대선 기류에 당내갈등 분위기서
단일대오로 뭉쳐 갈등봉합 시도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더불어 민주당도 ‘내란 종식’을 고리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내 노선투쟁을 하는 분위기였으나, 대통령의 석방으로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경북 구역 인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비이재명)계·비주류 인사들을 만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계파를 떠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이재명 때리기’ 전력이 본격화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회고하며 ‘검찰과 당내 일부 의원이 짜고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로 뭉치는 모습이 필요했다. 이에 이 대표와 비명계 대표자들이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2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해) 적절하게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며 “윤 대통령은 한국판 킬링필드(1960~70년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인이나라 최고의 합의인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라는 기본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 모인 비명계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내란 극복과 탄핵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자가 개신장군처럼 구치소 앞을 행진하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4일차인 김경수 전 지사는 “탄핵으로 반드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 내란 세력들에 국민인권을 가세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가 현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총장도 “불법 계엄 이후 한 국주식시장에서 250조원이 날아갔다. 한

울도 100원 이상 올랐고 이를 방어하느라 외환보유고도 줄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국민이 가진 가장 웅장한 힘은 견뎌내는 힘과 회복하는 힘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론분열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경북 구역 인근 천막 농성장을 오가는 도로 행진에 나섰다. 매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8.7km 거리를 걸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방침이다. 14일에는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법사위, 심우정·박세현 현안질의 증인 채택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尹 구속취소’에 출석 요구했지만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결국 법사위는 오는 19일 두 사람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을 향해 “윤석열은 (구속기간에 대해)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대검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전날(11일)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현안질의에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을 구두로 요구했다. 하지만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법사위는 이날 오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오는 19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

다자녀 학자금 지원, 둘째 자녀로 확대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만나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국가장학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부터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대학생·대학원생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탈피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낡은 껍질을 깨트리지 않고 버티면서 청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해서 맘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에 더해 청년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료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청년들의 등록금, 주거비,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평균 용돈과 생활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복지 처우 개선 ▲등록금 인상 과정의 민주화 ▲월세·기숙사 지원 등 대학생·대학원생 주거 처우 강화 ▲헬스 바우처 지급 등 학생 건강권 강화 ▲대학원생 지원 강화 ▲예술대학교 작품 제작 지원비 강화 ▲등록금 분할 납부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박태홍 기자



ANGELINUS

자충수 vs 혁신... 카드업계, '애플페이 도입' 갑론을박

신한·국민, 애플페이 도입 압박
현대카드와 점유율 경쟁 예고
수수료 부담에 수익성 우려 속
해외여행 시장 판도변화 기대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카드업계는 사업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신한카드 자체 플랫폼인 '솔페이' 앱에 애플페이 등록 화면이 등장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에 관한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는 소식 이후 추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달 신한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에 진입하면 현대카드 이후 2년 만에 2번째 카드사가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란 입장이다.



Chat GPT가 생성한 '애플페이에 진입하려는 카드사' 이미지.

앞서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도입 설도 확산했다. 지난해 8월 한구인구직 사이트에 'KB국민카드 애플페이 구축-태덤 경력자'란 제목의 인력충원 게시글이 올라오면서다. KB국민카드 또한 결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애플의 비밀유지계약(NDA)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신규 카드사가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2년간 이어졌던 현대카드의 독주가 깨진다. 상위권 카드사의 진입이 유력한 만큼 아이폰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점유율 경쟁이 예상된다. 점진적으로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에 진입할 것이라 시각도 있다.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애플페이 도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 의견이다. 올해는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이 이뤄졌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40%다. 현대카드가 애플에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15%로 전제된다. 수수료 수익의 최대 37.5%를 애플에 제공하는 셈이다.

별도로 국제브랜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있다. 애플페이는 EMV(유로·마스터·비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맡기려는 이 있다. 일각에서는 '헤지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간접적인 피해는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카드사 입장에서 경쟁사 대비 선제 진입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신한카드가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해외여행 특화 상품인 신한 솔 트래블 체크·신

용카드를 출시했다. 애플페이가 해외 결제 편의성을 높여주면서 상호작용할 것이라 해석이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효과를 누린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승인잔액은 3조3524억원이다.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M/S)을 차지했다. 현대카드의 아멕스카드와 애플페이 조합으로 2년 연속 신용카드 해외승인잔액 1위를 기록했다.

KB국민카드 또한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독인효과'를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KB국민카드는 신규회원 78만4000명을 유치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력을 나타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으로는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 도입이 예상된다"며 "신한·KB국민카드 모두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득실을 철저히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입주 시작했지만... 상업시설·교통 인프라는 '미완'

부동산 현장 르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공실·지하철 공사 지연에 불평
PM사 vs 조합, 상가 가압류 논란도
집값은 강세 전용 84㎡ 호가 27억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본격적인 입주를 진행 중이다.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지난 11일 찾은 단지 곳곳에서 이삿짐 차량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단지 내 상업시설과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상가 공실, 지하철 연결 지연, 가압류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집값은 강세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호가가 오르는 중이다. 전용 84㎡ 호가는 27억원대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율은 약 75%로 지난해 말 30% 수준에서 빠르게 올라갔다. 입주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이유는 오랜 입주 대기 수요와 매매·전세 시장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의 안정세가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2월 2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업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입주 후 생활이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내 핵심 상업시설인 '포레온스테이션 5'의 1층 상가는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상태다. 불이 꺼진 점포들 사이로 '임대문의'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A씨는 올파오의 상가 임대료(평당 기준)는 2~3층(약

30만~35만원)과 1층(약 60만원)이 두 배가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2~3층에는 병원, 태권도 학원 등 교육·의료 시설이 70~80% 입점했지만 1층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공실이 많다"고 말했다. 상가 입점은 3월 말 잔금이 마무리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까지 대부분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문제도 입주민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하철 5호선 둔촌주공역과 맞닿아 있으며 당초 2번 출구가 단지 내 상가와 직접 연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완료



공사 중인 둔촌주공역 2번 출구.

/전지원 기자

될 계획이었던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완공 시점이 5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또다른 공인중개업소 B씨는 "출퇴근 시간이면 먼 길을 돌아서 이동해야 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역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했던 입주자들의 실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올파오 상가를 둘러싼 가압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가 재건축관리사(PM) ㈜리츠인홀딩스는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지만 조합 측은 "법적으로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상가는 신탁 재산이므로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는 가압류·전세권·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며 "가압류가 가능하려면 정확한 손해가 발생한 이후야 하지만 현재는 최종 정산 전 단계라 법적으로 가압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가압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PM사가 조합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실제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과 PM사 갈등의 핵심은 상가 분양 수익 180억원의 배분 문제다. 조합에 따르면 PM사는 상가 분양으로 얻을 예상 수익 중 180억원이 조합원들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생기자 반발하고 있다.

PM사는 "이 금액은 본래 PM사가 가져야 할 몫"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 예고한 것이고 조합은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PM사가 미리 손해를 예단해 가압류를 걸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 협박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결국 가압류 논란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협박성 조치이며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LH, 올해 2000억 규모 공동주택 건축설계 공모

전국 72개 블록 대상 63건 공모
상반기 중 모든 설계 공모 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72개 블록, 2000억원 규모로 공동주택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공모 건수는 총 63건이다. ▲광명시흥 S2-1BL(1742호, 60억원) ▲고양창릉 S-9BL(1519호, 52억원)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72개 블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보다 8000호 늘어

난 6만3000호 수준이다.

LH는 투자비 적극 집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모든 건축설계 공모 추진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달 남양주 왕송 A-6BL(973호, 20억원) 등 3건(2000호, 69억원)을 추진한 데 이어 이달에는 고양창릉 A-6BL(643호, 29억원) 등 14건(1만3000호, 398억원), 4월에는 경산대인 A-4BL(641호, 22억원) 등 총 46건(4만7000호, 1524억원)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LH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공모방식을 다변화한다. 일반공모와 설계 주체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제안공모도 함께 추진하며, 사업 대상지 중 동일 택지 내 인접블록, 유사 사업유형 등의 경우에는 통합공모 방식도 활용한다.

LH는 지방소멸 위기, 고령화 등 주요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설계공모도 추진한다.

강호동 회장, 쌀 소비촉진 예금 1호 가입

(NH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은 서울시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공익특관예금 'NH더 든든밥심예금Ⅱ' 출시를 기념해 강호동 NH농협중앙회장이 1호 고객으로 상품을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NH더든밥심'에 이어 출시한 NH더든밥심예금Ⅱ는 쌀값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돕고 아침밥 먹기를 통한 고객의 건강한 하루를 지원하는 공익형 예금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 판매한다.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1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2.6%로 아침밥 먹기에 동참하면 0.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금리 3.1%(최저 2.6%)를 적용한다. 또한 고객의 상품가입에 따라 우리 쌀을 적절히 판매 종료 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LG전자, 세계 무대에서 접근성 뽐내... 고객경험 혁신 이끈다

‘씨선 앳’ 글로벌 콘퍼런스 참가
컴포트 키트 등 다양한 솔루션 선보여
“접근성 강화 활동 확대해 나갈 것”

LG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접근성 콘퍼런스에서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LG전자는 미국 애너하임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접근성 콘퍼런스 ‘씨선 앳(CSUN AT) 2025’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씨선 앳’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CSUN)이 주최하는 보조공학기술 행사로, 접근성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힌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도 접근성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매년 참가하고 있다. 글로벌 생활가전 기업 가운데 ‘씨선 앳’에 참가한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단독 전시



바르셀로나에서 지난달 4일(현지시간) 열린 ‘ISE 2025’에 2세대 키오스크가 전시돼 있다.

부스를 마련하고 장애인이나 시니어 고객이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했다. 높낮이 조절 기능과 촉각 키패드를 적용한 키오스크 신제품이 대표적이다. 신제품은 휠체어 사용자나 키가 작은 사람도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눈높이에 맞춰 키오스크 화면부의 높낮이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촉각 키

패드 액세서리도 추가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도 향상했다.

이 외에도 생활가전, TV 등에 액세서리를 부착하거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만으로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가전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돕는 ‘LG 컴포트 키트’, 음성으로 가전을 제어하는 등 쉬운 사



LG전자가 ‘CSUN AT 2025’에서 ‘LG 컴포트 키트’를 소개했다.

/LG전자

용을 지원하는 ‘LG 씽큐 온’, 올레드 TV에 탑재된 ‘음성메뉴 읽어주기’, ‘보청기·스피커 동시듣기’ 등도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기간 중 LG전자는 기업 및 학계 전문가, 장애인단체를 초청해 AI홈, 컴포트 키트를 포함한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도 진행한다. 고객이 불편을 겪는 지점(페인 포인트)을

해소해 보다 편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회사 측은 “이번 전시 참가는 컴포트 키트 등을 선보이며 접근성 개선에 진심을 다하는 LG전자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외부 고객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접근성 강화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metroseoul.co.kr

석화업계, ‘전력 리스크’ 우려 확산 스마트 관리 시스템 필요성 대두

정전 발생 시 대규모 손실
“전력 공급 안정화 전략 필수”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이 정전 사태 이후 2주 만에 정상화됐지만, 전력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연속 공정이 필수적인 석유화학 공장은 정전 발생 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에서는 자가 발전과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일부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비상 발전기를 도입해 정전에 대비하고 있으나, 대형 공장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공장은 전력 소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상 발전기만으로 전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하면 주요 생산 라인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했다. 롯데케미칼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이번 정전으로 NCC,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며 “이는 전체 매출의 17.83%에 해당하는 생산 라인”이라고 밝혔다. LG화학도 공시를 통해 “정전으로 인해 매출의 9.38%를 차지하는 생산라인이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외부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축된 재고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했고, 일부 보수 비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G화학도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 나프타분해시설(NCC)은 각각 연산 130만 톤, 110만 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석유화학 공장의 정전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LG화학 여수공장에서 변압기 문제로 인해 벤젠, 톨루엔 등의 주요 제품 생산라인이 중

단된 바 있다. 2011년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16분간 정전이 발생해 SK에너지, SK케미칼 등 120여개 업체가 공장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LG화학도 롯데케미칼(당시 롯데대산유화)은 2006년 변전소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을 겪은 뒤 한국전력을 상대로 10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도 있다.

이후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공급 시스템 개선 ▲비상 전력 공급 체계 구축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정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전력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비상 발전 설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자가 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풍력발전 공장 세운다

지멘스가메사 EWA 체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지멘스가메사의 14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기 제작을 위한 공장 구축에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2일 지멘스가메사와 ‘창원 풍력발전 신규 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업무착수협약(EW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창원공장 내 14MW 해상풍력발전기 제조공장 및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다. 지멘스가메사는 기술 이전과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내 해상풍력 최다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멘스가메사는 독일 지멘스에너지의 풍력 사업 부문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28GW의 공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 BG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



지난 11일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열린 지멘스가메사와 사전업무착수협약(EWA) 체결식에서 지멘스가메사 나셀 생산총괄 펠커머던 박사(왼쪽)와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영업총괄 윤요한 전무가 서명하는 모습.

/두산에너지빌리티

력 생태계 활성화와 무탄소 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해상풍력 입찰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야월해상풍력(104MW)의 우선계약협상자로, 지멘스가메사는 ▲안마1해상풍력(224MW) ▲안마2해상풍력(308MW)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750MW)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지멘스가메사는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공장에서 해상풍력발전기 나셀을 조립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현대제철, LPG·암모니아선용 고부가가치 후판 생산

HD현대그룹 협력... 충격 저항성 강화

현대제철이 HD현대그룹과 협력해 극저온 충격 저항성과 용접성을 강화한 신규 후판을 초도 생산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11일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함께 LPG·암모니아 운반선용 신규 후판 강제 초도 생산 기념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LPG·암모니아 운반선은 액화 물질

저장을 위해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 일반 강재를 적용하면 충격 인성이 낮아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신규 후판 개발에 매진했다.

신규 후판은 압연 온도 제어로 강재 내부 조직을 변화시켜 강도와 인성, 용접성을 향상시키는 TMCP2 기술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합금 함유량이 많아 용접성

이 떨어졌던 기존 후판과는 다르게 합금 성분을 낮추면서도 저온 충격 인성과 용접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후판을 효율적으로 용접할 수 있는 대입열 용접 기술도 함께 확보하면서 선박 건조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은 이달 말까지 신규 강재의 선급 인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공급 체계를 갖춰 판매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 QLED TV, SGS ‘무카드뮴’ 인증

〈無〉

유해물질 제한지침 충족... 안전성 확인

삼성전자 QLED TV가 스위스 소재 글로벌 인증 기관인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로부터 ‘무(無)카드뮴’ 린텀닷 기술 우수성을 인증받았다.

삼성전자는 QLED TV에 들어가는 ‘린텀닷 필름’에 대해 카드뮴 미검출 및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기준 준수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SGS는 전자 제품, 식품, 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엄격한 품질 및 안전 기준

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시험·인증 기관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을 충족해 시장 환경의 안전성도 인정받았다.

손태용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QLED TV는 뛰어난 화질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수출 中企, 시장 다변화 준비... “금융·물류 지원 절실”

中企 ‘美 철강관세’ 파장

중기부·중기중앙회·중진공 수출 기업과 애로 대응 방안 모색 김기문 회장 “수출길 막혀 기업 고충” 오영주 장관 “경영정상화·수출 지원”

철강·알루미늄 관련 수출 중소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도발’로 사면초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관련 중소기업은 1815개사다. 수출 규모는 각자 다르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복병을 만났고 미국 외에 수출 대체지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 팔탄면에 있는 지제이알미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심각한 얼굴로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미국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지난해 8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지제이알미늄은 이 가운데 약 112억원(772만 달러) 어치를 미국 등 해외에 수출했다. ‘700만 불 수출의 탑’도 지난해 수상했다. 99년 창립 이후 압연 등의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 관련 각종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

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비 구입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중진공에서 기업이 원하는 만큼, 제때에 정책 자금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볼트, 너트 등을 제조해 지난해 500억원 가량의 매출 중 35% 가량을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우리 제품도 포함된다. 정부에 실질적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볼트, 너트 생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업인들은 정책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물류 지원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다보니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애로가 있다.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수출이 정말 걱정이다”며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국 중기청 등 연방정부 및 12개 주정부 경제관료들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도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총 67명을 투입,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한다. 이들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달 중 중기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발로 무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중심이 돼 협력을 하고 있으며 중기부도 수출바우처와 2500억원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풀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 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다변화도 적극 지원한다. 5월 예정인 수출바우처 2차 공고 시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미국 외에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수출·매출 실적 등을 토대로 진행하는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지표를 29개에서 15개로 축소하는 등 평가절차도 간소화한다.

/화성(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국내외 AI 규제 강화... 中企, 대책마련 시급

AI기본법 시행 앞두고 기업 부담 가중 개발 초기 규제 적용, 스타트업 위기 AI기업 “설 자리 없어... 정부지원 필요”

국내 외 인공지능과 관련된 표준화 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AI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2일 중소기업,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세계 최초로 만든 ‘AI(ACT)’법은 지난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내년 8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체들은 EU가 제시한 AI관련 규제 강화가 국내 AI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법은 AI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EU외의 국가에서 개발됐더라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U에 점목할 시에는 해당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차경진 연구위원은 ‘EU AI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요구사항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문서화나 위험 평가, 적합성 인증 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EU 내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규제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소통 창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AI 관련 기업 육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은 국내 규제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내 ‘AI기본법’ 때문이다. AI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EU의 AI법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EU의 고위험군 AI 창작물에 대한 규제 조치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AI윤리와 안전성 기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따른 활용, 관리, 인증, 시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 마련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AI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케미칼, 깐S25에 재활용 소재 공급

삼성 반도체 웨이퍼 트레이 재활용

롯데케미칼이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에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하며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에서 반도체 웨이퍼 이

송에 사용된 폐기물(웨이퍼 트레이)을 수거해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로 재활용하고, 이를 갤럭시 S25의 SIM 트레이, 사이드키, 볼륨키 등에 적용한다. 또한, 폐어망을 활용한 폴리amide(PA) 소재를 가공해 갤럭시 S25의 스피커 모듈 등 내장 부품에 공급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는 사업부

간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롯데케미칼은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의 적용을 확대하며 ESG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2023년부터 자원 순환 브랜드 ‘에코시드’를 운영하며, r-ABS, r-PC, r-PET 등 다양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에코프로이노, ‘리튬메탈음극’ 개발 본격화

“전고체 배터리도 주도권 가져갈 것”

리튬가공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음극소재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하이드로퀘백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차세대 리튬메탈음극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차세대 리튬메탈음극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리튬가공 노하우와 하이드로퀘백의 메탈음극 연구 성과를 결합해 리튬메탈음극 개발에 힘을 합친다는 복안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탄산리튬을 고순도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을 통해 삼원계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산 2만6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 캐파를 갖추고

있는데 삼성SDI 등 배터리 셀업체에 지난 2022년부터 총 3만2000톤의 수산화리튬을 공급한 바 있다.

하이드로퀘백은 캐나다 퀘벡주 정부가 소유한 전력회사로 오랜 전지 소재 개발 경험을 가진 ‘CEETSE’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CEETSE는 1980년대 초부터 리튬메탈음극 및 전고체 전지 분야에 선도적인 투자를 이어 왔다.

리튬메탈은 음극재에 주로 사용되는 흑연과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10배가량 커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김운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노베이션이 리튬가공에서 리튬메탈음극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전고체 배터리에 서도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글로벌비스, 스마트 물류 혁신 선배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 첫 참가

현대글로벌비스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AW 2025)’에 참가해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역량과 물류 자동화 기술력을 선보인다.

AW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공장·자동화 관련 전시회로 오는 14일까지 개최되며 현대글로벌비스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시회에서 현대글로벌비스는 스마트 물류 특별관에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현대글로벌비스는 전시 부스에

서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물류로봇 ‘스트레치’의 시연도 진행한다. 아시아 국가에서 스트레치의 오프라인 시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트레치는 약 23kg에 달하는 상자를 시간당 평균 600개씩 나룰 수 있는 팔을 갖추고 있다. 하부에는 자율 이동 로봇인 AMR이 장착돼 최적의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 스트레치를 고정시키고, 팔레트 위에 있는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는 디팔레타이징 작업을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김상현 “뷰티·푸드 넘어 ‘K-서비스’ 세계적 산업으로 육성”

(롯데 부회장)

한경협, ‘서비스산업위원회’ 신설
초대 위원장으로 김 부회장 선임

유통 경험 바탕 고객중심 전략 펼쳐
서비스 산업 법적토대 마련 등 강조

김상현 롯데 부회장이 한국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K-뷰티’, ‘K-푸드’에 이어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K-서비스’를 키워내겠다는 포부다.

12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김상현 부회장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이하 서비스산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한국경제연합회(한경협)가 올해 처음 신설한 조직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김 부회장은 “K-뷰티, K-푸드를 넘어 ‘K-서비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 한경협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참여해 개회사를 진행하는 모습. /롯데쇼핑

실제 김 부회장은 오랜 글로벌 경험과 ‘고객 중심’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유통 서비스 산업을 이끌어 온 인사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졸업해 J.P.모건, P&G 등 글로벌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한국 유통업계로 넘어와 2022년 2월, 외부 출신 최초로 롯데그룹 유통군 총괄대표로 발탁됐다. 현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e커머스 등 유통 계열사를 총괄을 맡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점점 사업을 이끌며,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체험형 요소를 접목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 바 있다.

국내외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 전략을 펼쳐온 김 부회장이 이제 서비스 산업의 정책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 부회장은 서비스산업위원회 출범 회의의 개회사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 경제에서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각종 규제와 진입 장벽으로 인해 혁신 기술 기반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서비스산업위원회의 출범 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초청됐으며, 김상현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 11명과 자문위원 4명이 참석했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서비스산업위원회는 ▲규제 혁신 ▲인력·생산성 개선 ▲신산업 육성 등 3개 분과를 운영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 부회장은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서비스 산업의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애플, 안드로이드에 ‘애플TV+’ 도입... ‘성장 정체’ 돌파구 마련

경쟁사 삼성전자에 자사 서비스 개방
‘애플뮤직’ 도입 이후 10년만의 공개
삼성전자, 서비스 확대로 반사이익

애플이 정체된 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택했다. 자사의 OTT 서비스인 ‘애플 TV+’ 앱을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기기에도 도입한 것. 이는 지난 2015년 애플 뮤직을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공개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보수적인 애플이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까지 OTT 서비스를 도입한 주된 이유는 최근 성장 정체에 직면해서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서비스 사업 확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애플은 12일 브리핑을 열어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TV+를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이날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기종은 지난 2019년 공개된 안드로이드 10 버전부터다. 다만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애플 신제품 아이폰16 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최신 버전이 안드로이드 15인 점을 고려하며 구형 스마트폰 대다수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기종별로 보면 최신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는 물론, 갤럭시 S9 시리즈나 갤럭시

노트10에서도 애플 TV 앱이 지원될 수 있다. 또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기종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 단종된 LG 씽큐·LG 벨벳·LG 윙 등도 안드로이드 10 버전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애플 TV 앱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적이던 애플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자사 서비스를 개방한데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사업이 정체되자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자체 서비스 공개는 지난 2015년 애플 뮤직을 도입한 이후 10년만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2억3210만대에 그쳤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다. 애플의 주요 시장인 중국 매출은 11% 급감한 185억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4분기 애플 뮤직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 매출은 14% 성장한 263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애플

은 애플TV+,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등을 통한 서비스 구독 건수가 10억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애플 TV+의 안드로이드 버전이 출시로 삼성전자는 비용을 쏟지 않고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OTT 서비스인 애플 TV+의 도입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판매량 확대까지 이어지긴 어렵지만, 갤럭시 이용자의 서비스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과잉이라는 분석이다.

브리핑에서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애플 TV+’ 앱을 시연했다. 이번 애플 TV+는 버전은 안드로이드에 맞춘 디자인 언어와 UI를 사용했다. 기존 아이폰용 애플 TV가 그대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한 것. 안드로이드의 고유의 디자인을 지키면서 디바이스와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디자인 레이아웃을 구현했다.

특히 애플 계정이 없는 이용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

을 통해 접속 가능하며 애플 TV+ 앱에서 애플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애플 TV+를 구독할 수도 있게 됐다. 요금제 또한 애플 기기와 동일한 월 6500원이며, 첫 7일 간 무료 이용권도 제공된다.

애플 TV+는 매주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된다. 앱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탭은 애플 오리지널 시리즈는 물론 MLS(메이저 리그 사커) 중계를 지원하는 카테고리다. 앱을 통해 MLS 시즌패스도 구독 가능하며 모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 또 지역 제한 없이 메이저리그 야구(MLB)도 생중계해 금요일에는 야구 경기를 즐길 수도 있다.

또 그간 시청해오던 콘텐츠를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계속 보기’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다. 지난 몇 년 간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들을 확인하는 섹션과 예고편 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이에 와이파이나 셀룰러 연결 없이도 언제든지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중기부, 대기업·스타트업과 개방형 혁신 추진

‘딥테크 밸류업 공동 밋업 데이’ 개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참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과 만나 기술·글로벌 진출 등의 정보를 교류했다.

중기부는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주요 대기업과 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딥테크 밸류업 공동 밋업 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기부가 육성 중인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글로벌 대기업이 함께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자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사이언스파크, 포스코홀딩스, HD현대중공업, KT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참가했다.

특히,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전필규 삼성전자 부사장 등 대기업의 임원들이 함께 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대기업별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맞춤형으로 추천한 스타트업 중 26개사가 이번 공동 밋업에 참여했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50개사 내외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대기업은 이번 공동 밋업에서 발굴된 스타트업 중 평가를 통해 협업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대기업과 협력이 확정된 스타트업은 기술최적화,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협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KGM, 국내 최초 전기픽업 ‘무쏘EV’ 양산

고객 출고 위한 생산 본격화

KG 모빌리티(KGM)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전기 픽업 ‘무쏘 EV’ 양산 기념식을 갖고 고객 출고를 위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KGM은 경기 평택공장 조립3라인에서 객재선 회장 및 박장호·황기영 대표이사, 노철 노조위원장을 비롯 생산부서 임직원 등이 참석해 ‘품질 없이 고객없고, 고객없이 회사없다’라

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양산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쏘 EV 개발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객재선 회장의 격려사, 임직원들의 결의를 담은 구호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객재선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무쏘 EV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우리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2인 체제... 카카오, 내부감시 강화

2개사, 26일 정기주총 주요안건

이달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날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두 회사는 이번 주총안건으로 임원진 보직 변경 및 사내이사 선임 등을 추진하며 경영진 개편에 나설 예정인데, 새롭게 구성될 인선을 보면 각사가 우선한 과제가 엇보인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과 함께, 최수연 대표의 3년 연임을 안건으로 올렸다. 사내이사 채선주 ESG 정책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네이버는 이 GIO와 최 대표 2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김남선 CFO도 네이버를 떠날 예정이다. 네이버는 현재 신임 CFO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해진 GIO는 네이버 창업자로서 그동안 글로벌 사업 확장과 경영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었다. 경영일선 복귀는 7년만의 일로, 이 GIO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지정 검토를 시작하자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IT 포털 기업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뉴시스

네이버, 이해진 GIO 사내이사 선임 최수연 대표 3년임 안건 등 예정 사내이사 채선주 대표 임기만료

최초로 연간 매출 10조원을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더불어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전략 수립을 진두지휘하며 온 서비스 AI 방향성을 정립하는 등 중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의 이번 주총은 이해진 GIO의 경영 복귀와 CFO 교체가 핵심이다. 이 GIO가 사내이사로 복귀하면서 창업자 주도의 장기 전략 수립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최 대표의 연임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기존 AI·글로벌 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기조도 엿보인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손진영 기자 son@

카카오, 이사회 기존체제 유지 내부감시 강화로 리스크 관리 이사진 보수 한도 80억→60억

특히 김남선 CFO의 퇴임은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전략과 맞물려 해석된다. 김 CFO는 네이버웹툰의 미국 증시 상장 등 글로벌 진출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그동안 이해진 GIO와의 갈등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네이버가 신임 CFO 인선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향후 재무·투자 전략의 변화 가능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카카오는 기존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는 사외이사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조교수의 재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최 교수는 현재 카카오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 교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기에 더해 김선옥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올렸다.

이사진 재정비 외에도 이사진 보수 한도를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이고,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지에 경기도 성남시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주도에서 주총을 진행하면서 '깜깜이 주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주총에서 카카오는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감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존 사외이사를 재선임해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를 새롭게 선임하며 내부 감시 기능을 보강했다. 이는 현재 카카오가 처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이사진 보수 한도를 낮추거나 주총 소집지를 경기도 성남시로 추가한 것은 주주 접근성을 고려한 변화로 해석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월 최대 6600원 저렴 '신혼 인터넷 요금제'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는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프리미엄 안심보상' 요금제에 비해 월 이용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의 기본 인터넷 요금제인 '프리미엄 안심 보상'보다 최대 월 6600원 저렴하고, IPTV뿐만 아니라 유·무선 결합도 가능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이렉트 신혼 프로모션 요금제는 예비 및 결혼 3년 이내의 부부라면 누구나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 혼인신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예비부부는 청첩장 사본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프로모션요금제인 만큼 8월까지지만 신청을 받는다. /김서현 기자

AI·바이오·반도체 등에 6.8조...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국가전략기술 2025 시행계획 의결 과기부, AI전환 가속화 등 변화 반영

12대 전략 기술, 50개 세부 기술에 6.4조 투입... 전년 대비 30% 증액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반도체,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약 6조8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이다. 과학기술 권력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로

로 22개 부·처·청이 공동 수립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AI 전환 가속화와 융복합 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최근 과학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 확산에 따른 사업화 및 기업 연계 촉진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 고도화 ▲임무 중심 투자 강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에 전년 대비 30% 증액된 6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할 방침이다. 여기에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3700억원 규모의 비 R&D 사업도 추진된다.

AI·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 5건이 신규 착수된다. 기존에 R&D 지원이 부족했던 수소·첨단 로봇 등에서도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된다.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과 '딥테크 TIP S'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 및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도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 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재 양성도 핵심 과제다.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직무 분석,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

한 인재 성장 경로 추적 관리가 도입된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맞춤형 교육도 확대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한 협력도 강화된다. AI·양자·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과 국제기구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연계해 '10대 국방전략기술'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대형 프로젝트 및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 추진한다. MVP 사업 수행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부담을 줄이고,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서현 기자



모델들이 KT 통신 빅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인구 흐름과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정할 수 있는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KT

KT 지역별 인구흐름 분석 인사이트 플랫폼 선포

KT가 통신 빅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인구 흐름과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정하는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을 리뉴얼했다고 12일 밝혔다.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KT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KT 빅사이트' 플랫폼의 '생활인구분석솔루션'을 발전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단면적 데이터 분석만 가능했으나, 이번 플랫폼은 AI 기술로 시간대별 사람들의 생활 위치·이동 목적·이동 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등을 종합 분석한다.

K-데이터 인사이트 플랫폼은 총 4종의 데이터를 서비스한다. 여기에는 ▲출발·도착 기점별 이동 목적과 이동 수단을 분석하는 '생활이동데이터' ▲특정 시점·지역에 존재하는 인구를 분석하는 '생활인구' ▲특정 시점·지역에 중복을 허용한 인구이동량을 분석하는 '유동인구' ▲시·군·구 단위에서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를 분석하는 '체류인구'도 포함된다. /김서현 기자

SK C&C, 프롭티어에 AI 매니지드 서비스 네이버, AI기반 개인화상품 추천 앱 출시

SK C&C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부동산 거래 지원 서비스 기업인 프롭티어에 AI 클라우드 관리(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인 프롭티어는 2000만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부동

산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산업을 의미한다.

프롭티어는 현재 ▲전국 2만6000여명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디지털 AI 중개 업무 솔루션 '이실장' ▲임대주택 거래 지원 월세 서비스 '뉴렌트' ▲거래 사고 예방 '안심 케어 서비스' ▲부동산 매물 정보 플랫폼 '타운' 등의 프롭테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현정 기자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네이버(이하)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을 탑재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12일 출시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방대한 상품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자의 선호도, 과거 구매 이력, 맥락 및 의도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개별

이용자에게 관심이 갈 만한 상품을 우선 추천하고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혜택을 제안한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와 함께 'AI 쇼핑 가이드'와 '발견'도 새롭게 선보였다. AI쇼핑 가이드 기능은 노트북, 휴대폰,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군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화 추천 기능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동학개미 ‘퇴출 경계령’ 발동 관리종목, 올해만 8곳 늘었다

한계기업 440곳, 8년 만에 2.7배↑
코스닥 한계기업 23%로 급증
관리종목 84곳, 투자자 주의보
금융위 “부실기업 퇴출 속도”

동학개미(국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퇴출’ 경계령이 내려졌다. 최근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진데다 돈벌이가 신통치 않은 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에 나서면서 상장폐지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8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5개사) 대비 3개사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인 코스피 18개사, 코스닥 66개사 등 총 84개사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정상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법인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실적 악화로 부실이 심화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문제는 관리종목 지정이 투자자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상장폐지의 전 단계로 인식되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금양은 지난 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이후 금양의 주가는 26%가량 하락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 신용거래 금지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이차전지 솔루션 기업인 퀀텀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매매가 정지되면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한계기업 증가에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 이미지.

워졌다. 이처럼 관리종목 지정 기업들은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증시 밸류업의 발목을 잡는 한계기업도 많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G5)과 한국의 상장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분석대상 상장사 2260곳 중 19.5% (440개)가 한계기업이었다. 2016년 163곳(7.2%)에서 8년만에 2.7배로 늘었으며, 미국(25.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경우로,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만으론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비중은 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에선 한계기업이 2.5%p 증가(8.4%→10.9%)한 반면, 코스닥 상장 한계기업은 17.1%p 증가(6.6%→23.7%)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게 나타났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올해 증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중점 과제로 ‘상장폐지·IPO 개선안’을 꼽았다. 금융위가 올해 발표한 개선안은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도록 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증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증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며 “관리종목에서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엑시트(exit·자금회수)’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회사채 투자열기 지속… 수요예측 10조 돌파

금투협, ‘2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장외 거래량 441조9000억 기록

경기 침체 및 금리 인하 여파로 회사채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수요 예측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가 12일 발표한 ‘2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수요 예측 건수는 141건, 금액은 1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2조81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체 수요 예측 참여 금액도 63조457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조8460억원 늘었다. 참여율 역시 630.8%로 전년 동월 대비 29.3%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2월 전체 채권 발행액은 86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회사채 발행액은 19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

리 차이를 나타내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AA-’ 등급과 ‘BBB-’ 등급 모두에서 축소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 발행 잔액은 순발행이 39조원 증가하면서 총 2882조원에 달했다. 발행량 증가에 따라 2월 장외 채권 거래량도 전월보다 76조7000억원 증가한 44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2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국채와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며 3조4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도 국채 7조5000억원, 통인증권 1조5000억원을 각각 사들였지만, 기타 채권에서 3조1000억원을 순매도해 전체적으로 5조90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271조5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원관희 기자

키움증권, ‘Gen-Z’ 고민시 모델 새 CF 공개

2030 Z세대 투자자 공략

키움증권이 Gen-Z 투자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배우 고민시를 모델로 세운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다.

12일 키움증권은 고민시와 함께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 ‘투자에 대충이 어땠어? 시작부터 키움’을 공개했다. 캠페인은 2030세대의 일상을 배경으로 한다. 투자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고민시가 조언을 던진다. 투자금이 적거나 혹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투자를 쉽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 “투자에 대충이 어땠어?”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전한다.

키움증권은 2030세대가 기억하고 회자할 수 있도록 카피를 만들었다. 키움 히어로즈 젊은 팬들이 키움의 애칭으로 부르는 ‘뽀’이란 단어를 활용했다. ‘투자의 시작은 키움에서’라는 의미를 담아 ‘레디 뽀’이란 말로 캠페인을 마친다.

광고 캠페인 본편은 두 편으로 각 분량은 15초와 45초다. 6초짜리 짧은 영상



12일 키움증권은 고민시와 함께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 ‘투자에 대충이 어땠어? 시작부터 키움’을 공개했다. /키움증권

도 추가로 3편을 제작해 본편에 붙이는 식으로 캠페인을 다양화했다. 세로형 숏츠도 3편 만들었다. 캠페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당근 등 플랫폼과 넷플릭스·티빙 등 OTT(동영상 스트리밍)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원관희 기자

박현주 “신뢰·혁신으로 인도 금융시장 도약”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 인도서 비전 선포
미래에셋쉐어칸 인수 100일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 제공”

미래에셋증권은 인도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그룹 비전 선포식’을 인도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쉐어칸 인수 100일을 기념해 ‘Shaping the Future Together(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그룹 글로벌전략가(GSO) 박현주 회장이 참석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과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

박 회장은 축사에서 미래에셋의 글로벌 금융 노하우와 미래에셋쉐어칸의 현지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인도 금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고객을 우선하는 사명감과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서비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쉐어칸 인수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종합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적극 확대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기술력을 갖춘 현지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꾸준히 발굴하고, 기업금융(IB) 경쟁력을 빠르게 제고할 계획이다.

진화하는 인도 투자환경에 발맞춘 자금조달 솔루션을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독자적이고 혁신적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투자 원칙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투자 솔루션을 개발해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인도 관련 금융 상품

과 서비스를 글로벌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은 현재 19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투자 전문 그룹으로 6000억달러(약 870조원)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관리하고 있다”며 “신뢰와 혁신, 열정과 고객에 대한 헌신으로 인도 법인의 성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 인도법인은 미래에셋쉐어칸 인수 완료 후 통합 기준 고객 계좌 520여만개를 확보하고, 130여개 지점 및 4400여명의 비즈니스 파트너 등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를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 현지 5위 증권사 도약을 목표로 자산관리(WM), 투자는 행(IB) 중심으로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전자투표 활성화… 수수료 인하·홍보 확대

예탁원, K-VOTE 수수료 최대 90%↓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시스템(K-VOTE)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설명회 개최와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2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195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원은 발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협회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개인주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전자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VOTE 수수료 개편도 단행됐다. 주주수 2만 명 미만 기업의 경우 수수료를 구간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했으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는 전자위임장 수수료의 70%를 감면해 준다. 또한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에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면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채택을 결정하고,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주총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원관희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경북도, APEC 정상회의 국비확보 난항... 성공개최 '빨간불'

정부 요청 예산 총 13건, 2613억 국비 요청액 981억 중 4% 확보
응급의료대책 사업비 등 미확보



경주시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관련 추경예산 국비확보가 어려워 지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비상이 걸렸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에이펙 관련 국회의 추경예산안 확보가 녹록치 않자 지방비로 대체하는 등 정상회의가 온전히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경북도, 경주시 등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총 13건, 2613억원이다.

이중 국비 요청액 981억에서 12일 현재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이는 전체 예산 요구액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이펙 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정부 요청액은 75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자 지방비 150억원을 대체

확보할 방침이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40억원만 확보했다. 정부에 요청한 13건, 981억원 중 유일하게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에이펙 문화동행 축제와 관련, 총 사업비 100억원 중 정부 요청액 50억원 가운데 한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지자체는 이 행사와 관련, 지방비 5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클린 에이펙 가로경관 개선사업(정부 요청액 100억원 미확보) ▲

에이펙 정상회의 응급의료대책 사업비(정부 요청액 10억원 미확보) ▲ 에이펙 정상회의 주변 관광경관 개선사업(정부 요청액 100억원 미확보) 등이다.

특히 외국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의료 긴급상황 발생시 반드시 필요한 '응급의료대책 사업비'를 비롯 '지역 응급의료센터 확장구축 및 VIP전용 병동 조성 사업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자칫 외국 국빈들의 긴급 의료 시스템 미작동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할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탄핵정국속에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비확보가 불투명 한 상태에서 급하게 지방비라도 확보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며 "여야가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국가적 행사인 에이펙 정상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전체 지방비라도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이지만, 행사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 APEC의 장국으로서, 올해 말 비공식 고위관료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연중 200회 이상의 각급 APE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1조 80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경제만 해도 생산 유발 효과 97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654억원, 취업창출효과 7908명이다.

/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영산강 수질, 11년 중 가장 좋아

광주·전남을 가로지르는 영산강의 수질이 최근 11년 중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산강 수계를 대표하는 6곳(광주 2곳·담양·나주·무암·영암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평균 농도는 2.3mg/L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평균 BOD 농도가 3.5mg/L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수질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영산강 BOD농도는 2014년 3.2mg/L, 2015년 3.6mg/L, 2016년 3.4mg/L, 2017년 3.9mg/L, 2018년 3.4mg/L, 2019년·2020년 3.6mg/L, 2021년 3.7mg/L, 2022년 4.3mg/L, 2023년 3mg/L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사천시

농식품사업 예산 519.9억 확정

사천시는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박동식 시장을 위원장으로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 농업인 단체장, 농업인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정책 심의를 거쳐 내년도 농식품사업 예산을 신청한다. 이날 심의회는 농업 정책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 축산, 유통, 기반 정비, 산림 6개 분과 위원회별 사업 제안 설명과 심의 의결을 거쳐 30개 사업, 총사업비 519억 9000여만원을 확정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서면교차로 상징 정원 조성

부산시는 부산 중심부에 위치한 서면교차로를 자연형 정원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서면교차로 상징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서면교차로는 5곳의 교통섬이 있는 곳으로, 시는 서면교차로를 생태·자연주의형 정원으로 발전시켜 녹지공간 하층부에 다양한 식물을 식재해 시민들이 도심에서 변화무쌍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부산 최초로 추진하는 자연주의형 교통섬 상징 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진주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시행

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전남도, 탄소중립 위해 1950억 투입 전기·수소차 1만2578대 구매 지원

다자녀 가구, 전기택시 등 추가 지원
주민등록 관할 시·군서 신청 가능



광주시의회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민간, 공공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19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수소자동차 1만2578대 구매를 지원한다.

이 중 전기차는 1만1746대다. 차종별로 승용차 8049대, 화물차 2887대, 버스 87대, 어린이통학차 17대, 이륜차 706대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승용차는 1463만원, 화물차는 2400만원, 어린이 통학차는 1억2100만원으로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 구매 시 다자녀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전기택시는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생애 첫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또 전기화물차 구매 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의 경우 국

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수소차 보급 대수는 832대로 승용차 763대, 저상버스 25대, 고상버스 44대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승용차 3750만원, 저상버스 3억3700만원, 고상버스 3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 희망자는 주민등록 관할 시·군에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등 세부적 내용은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이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목포시, 청년 위한 창업·휴식공간 조성

청년쉼터 다락·청년센터 누리

목포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및 휴식 공간인 '목포 청년쉼터 다락(多樂)'과 맞춤형 창업 지원 공간인 '목포 청년센터 누리'를 조성한다.

'목포 청년쉼터 다락(多樂)'은 은근동 3-9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99.84㎡)의 건물로, 1층은 창업 공간(카페), 2층은 소통 공간으로 운영한다.

1층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2층은 지역 청년들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340여 권의 도서가 마련되어 있어 독서가 가능하다. 또한, 모임 및 스터디를 위한 회의실도 제공되며, 회의실은 대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시설인 '목포 청년센터 누리'는 보광동 1가 1번지 일원에 위치

한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421㎡)의 창업지원 시설이다. 이곳은 7개의 창업 점포 공간(총면적 252㎡)과 다목적 창업지원 시설로 구성된다.

창업 점포 공간은 사용 허가를 통해 운영되며, 총 7개실(각 36㎡)로 구성된 개별 창업 점포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목적 창업지원 시설에는 ▲전시·공유 공간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실 ▲문화프로그램실 ▲코워킹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등 창업자들의 업무와 네트워킹을 돕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

이 두 청년 시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지난달 취업자 수 7000명 줄어

고용률 62.1%... 전년비 0.2%p ↓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며 고용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경상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0.5%)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2.1%로 전년 동월 대비 0.2% 포인트(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p 오른 67.5%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7000명), 농림어업(5000명)은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7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3000명), 건설업(8000명), 제조업(1000명)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만4000명(3.7%)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5000명(2.2%), 일용근로자는 6000명(14.9%)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8000명(4.3%), 무급가족종사자는 2000명(2.2%) 각각 줄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교육청, 특수학교 통학버스 증차

30분 통학권 보장 확대·시행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증차해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을 확대·시행한다.

시교육청은 관내 15개 특수학교 중 학교 자체 노선 조정으로 미신청한 6개교를 제외한 특수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16대의 통학차량을 우선 증차한다.

또 통학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증차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특수학교에서는 통학버스를 최단 코스로 운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신입생 수요를 반영해 30분 통학권 보장을 위한 통학노선 조정을 실시하고, 추가 차량을 포함한 통학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주총시즌 성큼’... 유통가 ‘빅3’ 사외이사 모셔오기 분주

이마트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이준오 회장·최지혜 연구위원

롯데지주 감사위원 후보 서영경 롯데쇼핑 조현근 등 2명 후보에

신세계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주주총회사 사외이사 후보 올라



이마트 본사 전경.



롯데타워 전경.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전경.

주주총회 시즌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주요 유통사들이 관료 및 학계 인사, 유통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전문가 영입을 통해 더욱 가속화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이준오 세무법인 영광 회장과 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연구위원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김재욱 한국유통학회 이사 겸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을 신규 감사위원 후보로 공시했다.

이준오 세무법인 영광 회장은 1967년 생으로, 국제청 조사국장 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인사다. 최지혜 연구위원은 1985년생으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김재욱 한국유통학회 이사는 1997년부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유통전문경영자과정 주임 교수를 역임했으며, 같은 해부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시책자문위원회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롯데지주는 서영경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를 신규 감사위원 후보로 공시했다. 서 교수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롯데쇼핑은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조현근 전 풀무원샘물 대표이사과 히로유키 카나이 토키와 코퍼레이션 대표를 선정했다.

조 전 대표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아시아 총괄을 맡았으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글로벌 주류기업 디아지오에서 마케팅·신제품 개발 이사, 아시아태평양·일본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히로유키 카나이는 2020년 일본 화장품 기업 토키와 코퍼레이션에 전무로 입사한 뒤, 2021년 부사장을 거쳐 2022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신규 사외이사 선임 배경으로 “유통업은 소비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소비자 행동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 트렌드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고위 관료 및 학계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기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처럼 고위직과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사외이사 선임보다는 유통 현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인물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오는 20일 신세계, GS리테일, 호텔신라가, 21일 롯데쇼핑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25일에는 한화갤러리아, 26일에는 이마트, CJ, KT&G, 현대백화점, BGF리테일이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신세계百, 브루넬로 쿠치넬리 키즈 팝업 오픈

강남점 10층서 6월 말까지 운영 이탈리아 장인 제작제품도 제공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0층 브루넬로 쿠치넬리 키즈 팝업 전경.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6월 말까지 강남점 10층에서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 ‘브루넬로 쿠치넬리’ 키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최고급 양털 니트 의류로 유명한 이탈리아 고급 의류 브랜드다. 면 소재로 제작된 신생아 제품군을 비롯해 점프·셔츠·티셔츠·바지·신발 등을 선보인다.

특히, 클래식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스타일을 접목해 이탈리아 현지에서 장

인들이 직접 제작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인기 상품인 한정 수량으로 마련됐다. 대표 상품으

로 ▲남아 스웨이드 재킷 (10세 이상) ▲여아 데즐링 봄버 재킷 (10세 이상) (350만원) 등이 있다.

구매 고객 대상 혜택도 준비했다. 이달 16일까지 100만원 이상 구매 시 브루넬로 쿠치넬리 에코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신세계백화점 선현우 패션담당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패션을 공유하며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며 “럭셔리 아동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만큼 고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정관장 “흥이장군 사고 굿즈 할인 받아요”

신학기 맞아 한정판 오티즘 굿즈 판매

정관장이 3월 신학기를 맞아 ‘흥이장군’ 구매 시 할인 구매할 수 있고, 동시에 기부도 되는 한정판 오티즘 굿즈를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굿즈의 디자인은 오티즘(자폐성장애)과 함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표현한 것으로 오티즘과 비장애 어린이의 시각으로 바라본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굿즈는 지퍼 과일백, L자과일, 스프링노트 등 아이들이 신학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학용품 세트 구성되어 있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굿즈는 20일까지 전국 가맹점과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흥이장군’ 제품 구매 시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굿즈를 판

매한 수익금과 ‘흥이장군’ 매출액의 일부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자폐성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통합과 자폐성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다.

정관장은 2018년도부터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진행하는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월까지 총 8개월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오티즘과 비장애 유·초등부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 ‘흥이와 함께 오티즘과 함께’를 진행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데일리샷 앱 주문, 와인모어 점포서 픽업”

신세계L&B, 일주일간 와인 할인행사

신세계L&B는 13일 주류 전문 플랫폼인 ‘데일리샷’에 와인앤모어(Wine&More)가 신규 입점 한다고 12일 밝혔다.

데일리샷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와인앤모어’의 상품을 주문하면, 원하는 와인앤모어의 점포(전국 44개)에서 픽업할 수 있다.

신세계L&B는 데일리샷 입점을 기념해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유명 인기 와인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부르고뉴의 유명 생산자인 ‘도멘 A.F 그로’의 ▲도멘 A.F 그로 본 로마네오레아, ▲도멘 A.F 그로 부르고뉴 오프 쇼프 드 뉴 등 12품목을 할인 판매하며, ▲아뮤즈 부세 2022 도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발렌타인 23년, ▲일라이저 크레이그 프라이빗 배럴 등 인기 위스키도 할인하여 판매한다.

그밖에도 매월 와인앤모어의 인기 상품을 MD가 엄선해 데일리샷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데일리샷은 지난 3월 기준 월간 활성화 이용자(MAU) 수 130만명, 누적 앱 설치 수 212만 건을 돌파한 국내 1위 온라인 주류 플랫폼이다.

프리미엄 주류를 구입해 원하는 매장서 픽업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주류 관련 콘텐츠와 고객의 실구매 리뷰를 함께 제공하며 입문자부터 애호가를 아우르는 주류 생활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신세계L&B 관계자는 “데일리샷 입점을 통해, 와인앤모어가 엄선한 주류 상품을 다양한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신세계L&B의 주류 유통 및 판매 역량을 발휘해 이색적이고 즐거운 주류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컬리, 2년간 라이브방송 누적 조회수 5500만 회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지난 2년간 (2023년~2024년) 자체 라이브 방송 누적 조회수가 5500만 회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회당 평균 시청자 수 17만명, 평균 거래액은 2억 7000만원을 기록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컬리에 따르면, 컬리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이 시장에 안착한 요인에 가격과 배송이 영향을 미쳤다. 컬리는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방송 시청 중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지난 2년 동안 컬리 라이브 방송에 식품·패션·뷰티 등 총 1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성과를 올렸다는 게 컬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뚜레쥬르, 신제품 ‘흑미로운 찹쌀빵’ 출시

‘흑미로운 흑미단’ 체험단 진행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뚜레쥬르가 ‘흑미로운 찹쌀빵’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뚜레쥬르는 ‘건강한 데일리 베이커리’의 브랜드 핵심가치와 본질을 지키며 매년 건강한 베이커리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왔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식빵 맛집’ 뚜레쥬르가 선보이는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제품으로 찹쌀과 흑미를 넣어 건강한 한 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흑미로운 찹쌀빵’은 찹쌀 탕종을 활용해 찰진 식감을 살렸으며, 쫄쫄하고 촉촉해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퍼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소한 흑미



쌀알이 콧속 박혀 있어 입 안에서 툭툭 터지는 재미있는 식감도 느낄 수 있다. 찹쌀과 흑미의 고소한 풍미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진 제품으로 손으로 뜯어 먹을 때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또한 토스트를 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즐길 수 있다.

한편 뚜레쥬르는 건강한 한 끼의 의미를 전파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재미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흑미로운 흑미단’ 체험단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K-바이오, 올해 4개 바이오시밀러 허가... 세계시장 주도

셀트리온 3개, 삼바에피스 1개
천식·골질환 등 제품군 확장
美 시장 불확실성 대응 등 과제도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오미클로'

/셀트리온제약

2025년 시작과 함께 K-바이오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셀트리온과 삼바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4종이 허가를 받으며, 글로벌 전체 허가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바이오시밀러의 출시로 2023년 한 해에만 약 18조원의 의약품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일까지 세계적으로 총 5개의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를 받았다. 그중 셀트리온 3개, 삼바에피스가 1개 등 총 4개는 한국 제품이 차지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10일 천식, 만성 특

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오미클로'가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전체 적응증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첫 번째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다. 이와 동시에 오미클로는 미국에서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인정받아 향후 의료진의 처방 변경 없이도 약국에서 오리지널 제품과 대체 처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허가로 셀트리온은 올해 1분기에만 미국 제품 포트폴리오에 오미클로를 비롯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엡토즈마'와 골 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엑스지바' 등 4개 제품을 추가, 미국서 '10종'의 제품을 확보했다.

삼바에피스가 역시 지난 달 미국 FDA와 유럽 집행위원회(EC)로부터 골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제품 2종의 품목허가를 각

각 획득했다. 현재 삼바에피스는 미국에서 10종, 유럽에서 11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도 미국 FDA는 총 18개의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하였으며, 이중 한국 기업은 총 5건을 승인 받아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은 승인을 받은 국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출시에 따른 의약품 비용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접근가능 의약품 협회(AAM)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사용으로 2023년 한해에만 124억 달러(약 18조원)의 의약품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의약품 비용 절감 효과는 2015년 첫 번째 출시 이후 지난 10년간 360억 달러(약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따른 편차가 컸다.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인슐린 '디스프로'의 경우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점유율이 8% 그친 반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82%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규제 장벽(생물학적 동등성과 상호교환성 입증) ▲시장 수용성(오리지널의약품 제조사 방어 전략, 의료공급자 선호도) ▲많은 투자비용(제품당 개발비 1억 달러~2.5억 달러) ▲환급 문제(리베이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한 오리지널의약품 선호) ▲시장 불확실성(수년간의 바이오시밀러 개발기간 동안 새로운 제형이나 치료제 출시) 등 5가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바이오협회는 "바이오시밀러가 아직은 전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약 23%로 비중이 적어,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직면해 있다"며 "또한, 향후 10년 동안 독점권을 잃게 되는 118개 바이오의약품 중 90%에 대해서는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가 없어 시장 지속 가능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신제품

동아제약 검가드 검프로텍터 칫솔

동아제약은 검가드 검프로텍터 칫솔(사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가드 검프로텍터 칫솔은 0.01mm의 초극세모로 설계돼 잇몸 부담이 적고, 치아의 좁은 틈새를 관리해 준다.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을 세밀하게 제거하는 등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칫솔머리는 깊숙히 자리한 어금니와 잇몸선 근처까지 닿기 쉽게 제작됐고, 칫솔대는 밀착감 높은 소재를 사용해 정교한 칫솔질을 돕는다.

이번 신제품에는 복유럽 1등 구강 관리 브랜드 조르단의 클릭백 시스템 기술도 적용됐다. 클릭백 시스템은 양치 시 과도한 압력으로 손상되기 쉬운 잇몸을 위해 양치에 필요한 압력 이상의 힘이 더해질 경우, 칫솔 머리가 뒤로 젖혀져 잇몸 손상을 최소화한다. /이청하 기자



제약·바이오업계, ADC 글로벌 협력 강화... 연구개발 속도

(항체·약물접합체)

셀트리온 ADC 신약 임상 본격화 엡티스 우시XDC 업무협약 체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항체·약물 접합체(ADC)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의 항체·약물접합체(ADC) 전문 기업 엡티스는 글로벌 ADC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전문기업 우시 XDC와 '차세대 ADC 치료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엡티스는 항체 변형 없이 위치 선택적으로 약물을 접합시키는 ADC 링커 기술 '엡클릭'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항체와 약물의 비율(DAR)을 균일하게 확보할 수 있어 높은 품질을 보장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우시 XDC는 엡티스의 엡클릭과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또 우시 XDC는 회사가 보유한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엡티스가 해외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사는 의약품 화학·제조·품질



동아에스티의 항체·약물접합체 전문기업 엡티스가 우시 XDC와 차세대 ADC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엡티스

질(CMC)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전임상 후보물질 선정, ADC 파이프라인 구축, CMC 개발 일정 단축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가 중국 우시 XDC와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치료제 개발을 위한 확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으로 양사 협력 분야는 지난 2021년 체결했던 임상시료생산에서 연구개발로 확대됐다.

양사는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의 A

DC 플랫폼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을 조기에 확보하고, 우시 XDC의 연구인력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후보물질 탐색에 소요됐던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 측은 ADC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 파이프라인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연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ADC 신약 임상시험을 본

격화하고 있는 셀트리온도 중국 우시 XDC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ADC 신약 개발 프로젝트로, 앞서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우시 XDC와 자체 개발하고 있는 ADC 신약 파이프라인의 링커-페이로드 합성 공정 개발을 위한 CD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ADC 신약 파이프라인은 총 6개다. 셀트리온은 CT-P70을 시작으로 올해 총 4건의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해 임상 절차에 순차적으로 돌입하고 있다. 우시 XDC는 링커-페이로드 합성공정 개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승인받은 임상용 ADC 물질 생산 등을 담당한다.

국내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ADC 개발이 신약 후보물질은 물론, 원료의약품, 제조 부문 등 의약품 밸류체인 전반에서 주목받다 보니, 글로벌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바사, 남반구 지역국가에 자체 개발 독감백신 수출

'스카이셀플루' 75만 도즈 공급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상반기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남반구 지역 국가들에 자체 개발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총 75만 도즈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남반구에서 사용될 독감백신을 수출하는 것은 지난해 태국 첫 수출에 이어 두 번째다.

스카이셀플루는 임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세포배양 방식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전적격심사(PQ) 인증을 획득한 독감백신이다. 세포배양 방식은 유효성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접종 가능하다.

또 세포배양 방식으로 제조한 백신은 유효성을 이용해 생산한 백신에 비해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 효과적이다. 기존 유효성 방식 대비 생산 기간도 짧아 대유행 등 유사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엔 남반구

향 수출을 확대하면서 독감백신 생산 시설을 연중 가동하게 됐다.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설비 연속 가동에 따른 제조원가 절감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백신을 앞세워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등의 다수 국가들과 계약을 맺으며 스카이셀플루 수출을 본격화했다. 또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의 중남미 및 동

남아 지역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의 아시아 지역 진출도 추진한다. 장티푸스백신 '스카이하이드'의 경우, 발병률이 높은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시장을 정조준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된 백신들이 공격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위상과 인류 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위생천 스파클링 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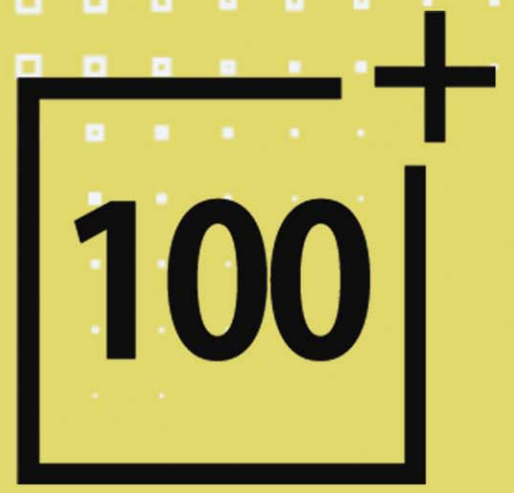
광동제약이 '광동 위생천 스파클링 제로'를 출시했다.

광동 위생천 스파클링 제로는 위생천 농축액을 함유한 식후 탄산음료다. 위생천 농축액과 농축매실추출액이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갖췄고 민트향과 탄산이 청량함을 전달한다.

이번 신제품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흐름에 발맞춰 당류와 칼로리를 '0(제로)'로 설계했다. 광동 위생천 스파클링 제로 1병은 75ml 용량으로 구성됐다. 또 10병 포장, 50병 포장 등 대용량 제품도 선보여져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다. 광동상회를 비롯한 온라인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구분육 KB손해보험 사장, 신학기 학습용품 전달
KB손해보험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 신학기 학습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학기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모든 아이들이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분육 KB손해보험 사장(두번째줄 왼쪽 두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이랜드파크, CP 서약식... 준법경영 적극 실천
이랜드파크가 지난달 25일 컨스텐호텔 여의도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약식에는 이지운 이랜드파크 대표(가운데)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여해 올해 운영 계획안을 공개했다. 유관 부서별 CP 조직 체계 구축 및 예산안 수립 등을 통해 투명한 업무 수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랜드파크



동아쏘시오 수석, 당진시복지재단 1500만원 기부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수석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보호 아동을 위해 당진시복지재단에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부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공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과 회사 기부금을 더해 마련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왼쪽부터)과 박성근 수석 대표이사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종근당 “콩팥병 함께 이겨내요”
‘세계 콩팥의 날’ 맞아 CKD 캠페인 전개

종근당은 13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 전국 의료진들과 함께 만성 콩팥병의 조기 진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자들의 관리와 치료를 응원하기 위한 CKD 캠페인을 진행했다.



CKD 캠페인은 종근당의 자사 영문 이니셜 CKD와 만성 콩팥병을 뜻하는 CKD(크로니 신장병)를 활용해 “스스로를 돌보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Care for yourself, Keep going, Don't give up)”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캠페인 슬로건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정기적인 콩팥 검사를 통해 스스로 콩팥 건강을 돌보고,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으면 적기에 치료를 시작해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사진)는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당뇨병 콩팥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자들을 응원하는 의미있는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종근당은 당뇨병 콩팥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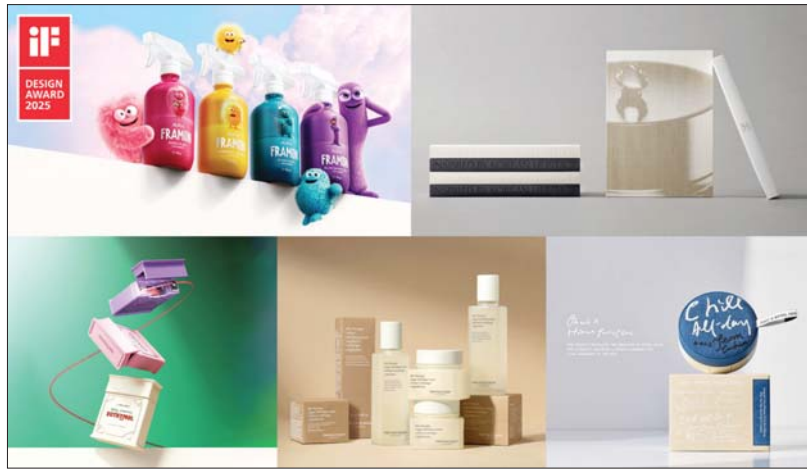
LG생건, 뷰티·생활용품 ‘iF 디자인 어워드’ 석권

지속가능 친환경 소재 활용 등 호평
더테라피 비건·프라몬 등 5관왕

LG생활건강이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처음으로 5개 작품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뷰티(화장품) 부문에서 ▲더후 브랜드북 ▲더테라피 비건 ▲오후 얼티밋 핏 진쿠션X호텔827 등 3개 작품, 생활용품 부문에서 ▲프라몬 ▲유시물 클래식 치실 등 2개 작품으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섬유탈취제 브랜드 '프라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생성형 인공지능 '미드저니'를 활용해



'프라몬'(맨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더후 브랜드북', '오후 얼티밋 핏 진쿠션X호텔827', '더테라피 비건', '유시물 클래식 치실' /LG생활건강

재미있는 브랜드 캐릭터를 완성했다. '유시물 클래식 치실'은 조작하기 편한 형태를 설계한 아이디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더후 브랜드북'은 공중 피부과학력서리 브랜드 더후를 소개하는 책자로, 한국 공중문화 역사와 한약학 처방이라는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를 디자인으로 구현한 점이 돋보였다. '더테라피 비건'과 '오후 얼티밋 핏 진쿠션X호텔827'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잘 활용한 디자인으로 호평 받았다.

LG생활건강 디자인센터 관계자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정진한 결과,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 5관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오직 고객만을 위한 LG 생활건강 디자인의 도전과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미니 타투 프린터 '임프린투'를 출품해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장학재단, 온라인과외 지원사업... 소외계층 학업 돕는다

관다과외 협력... 2.5억 투입
맞춤형 학습기회 무상 제공

롯데장학재단이 지난 10일 롯데재단 회의실에서 '신격호 롯데 소외계층 온라인과외 지원 사업 전달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종훈 관다과의 최고경영자(CEO), 이은택 통일유아환경과인권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롯데장학재단이 울산 지역 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가운데), 이은택 통일유아환경과인권 대표(왼쪽), 이종훈 관다과의 최고경영자(오른쪽)이 지원사업 전달식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롯데장학재단

1:1 비대면 과외 서비스 '관다과외'와 협력해 울산 지역의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과외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지역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50명 등 총 100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이다. 대상으로 선발

된 학생들은 관다과의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의 온라인 과외를 주 2회 수강할 수 있으며, 학습에 필요한 태블릿과 펜을, 교재를 함께 지원받는다. 수업은 내달부터 약 12개월간 총 8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 지역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을 겪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에게도 이 사업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스타벅스 “‘펫 페스티벌’ 놀러오세요” 시몬스, 세정 적극 협력... 부총리 표창

내일부터 3일간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스타벅스 최초의 펫 프렌들리 매장인 더북한강R점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이벤트를 선보이는 펫 페스티벌을 14~16일 3일간 개최한다.

스타벅스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코코스퀘어와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차별화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메인 이벤트는 행사 3일간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14일에는 세계 독소 대회 우승자의 퍼레이드 공연을 진행하고, 15일에는 펫스타 펫쇼를 통해 전문 모델과 반려견이 시밀러룩 런웨이를 진행한다. 16일은 반려동물과 즐길 수 있는 분리수거 밴드, DJ 아스터의 디제잉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행정 효율성 향상 기여

시몬스(대표 안정호·사진)가 성실한 납세와 관세 행정에 적극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2일 시몬스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회사가 기업 상표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 지원 및 관세 업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관세청 주관 공무원 교육 등에도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시몬스는 정확한 수출입 신고와 관세 납부를 통해 국가 재정 수입 증대에 일조하고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시몬스는 업계 리더 브랜드로서 이번 표창 외에도 경기도 이천시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ESG 행보로 다양한 관련 상을 수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세아홀딩스,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국내 기업 최초 2년 연속 선정

세아홀딩스의윤리경영이글로벌 무대에서 2년 연속 인정받았다.

세아홀딩스는 글로벌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의 기준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평가 기관인 에티스피어가 주관하는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

일 밝혔다.

에티스피어는 지난 2006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 세계 19개국, 44개 산업에서 총 136개 기업이 선정됐다. 세아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뉴데일리 △강원취재본부장 이달수

부음

▲박차임씨 별세·강득구씨(경기도국회의원) 모친상=12일, 메트로병원 장례식

장 201호(안양시만안구 명학로 33번길 8), 발인 14일, 031-449-9000

▲이지웅(제8·9대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씨 별세, 이석우(삼진씨앤씨 대표)씨 부친상=12일, 영남대병원 장례식장(대구 남구 현충로 170), 발인 14일, 053-620-4647

▲고혜자 씨 별세, 이상욱(디에이치엑스컴퍼니 대표)씨 장모상=12일,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02-2224-2193

이젠 현재의 시간,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자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변론 이후 2주째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12일까지 2주 넘게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비교해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역대 최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제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월 27일 변론 종결 이후 3월 10일 결정까지 11일이 걸렸다.

그만큼 현재의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다. 다만, 현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연일 탄핵심판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당장 이번 주말에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측과 반

대한 측의 거리 시위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사라졌고, 의원들은 국회에서 아닌 거리에 몰려나와 나라를 돌로 쪼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현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란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진영에 반대되는 현재 결정이 나오면 내란이라고 일으키자고 선동하는 듯 하다.

지난해 말부터 나라가 온통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사이, 서민 경제는 피폐해졌고 해외에선 글로벌 관세전쟁에 불이 붙으면서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가계가 혼란에 빠졌는데,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정부의 시계는 정치권만 바라보며 멈춰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정쟁을 벌이는 것은 어찌보면 그들 본분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심판결정에 불복해 내란을 운 하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한 국가의 리더로서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누구 손을 들어주던 '심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란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발을 딛고 있는 민주주의 자체를 깨자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혼란을 틈타 활개를 치는 자칭 종교인, 교육인, 유튜브 등이다. 이들은 온갖 자극적인 말로 국민을 자극하며 혼돈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종교인이나 교육자인지, 이런 혼란을 틈타 사욕을 채우려는 사이비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현재의 시간이 오고 있다. 탄핵심판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현재에서 충분히 할 얘기를 다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심판관이라 할 수 있는 현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시간이다.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패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고, 현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우리 정치와 시민의식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y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3일 (음 2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다. 48년생 좋은 일을 자랑 마라. 60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보자. 72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나서지 마라. 84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 소** 37년생 숨어 있는 낭비를 즐기고 긴축재정. 49년생 자존심만 내세우면 적이 많이 생긴다. 61년생 지나는 세월이 허망하기만 하다. 73년생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라. 85년생 소화가 안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 호랑이** 38년생 찬란한 태양이 나를 위해 비춘다. 50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6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돌 고을 모르겠다. 74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 86년생 하늘은 맑고 공기도 좋으니 마음이 편안.
- 토끼** 39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51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63년생 가정의 화목을 우선시하라. 75년생 성공은 노력의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 87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 말** 40년생 약간의 먹구름은 무서해도 좋다. 52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은 필요. 64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76년생 노력의 뒤에는 위대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 88년생 진실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 뱀** 41년생 그물에 갇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53년생 기다리던 문서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5년생 눈 건강이 염려되니 안과를 방문. 77년생 진한 사랑의 속삭임에 의심을 해보는 것도. 89년생 밖은 전쟁터이니 투자는 신중하게.
- 닭** 42년생 농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54년생 허탕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본다. 66년생 자신을 격려하라. 78년생 거짓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인데. 90년생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다.
- 양** 43년생 운이 흐트러져 금전이 떠르는 하루. 55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67년생 오늘의 불운을 아제의 교만이다. 79년생 남의 홍보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가 된다. 91년생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포용이 필요.
- 원숭이** 44년생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니 신경 쓰인다. 56년생 주변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마음 편하다. 68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제이다. 80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소지품 주의. 92년생 집을 신중히하기보다는 리모델링을 생각해보는 것이.
- 닭** 45년생 자신의 특기를 큰 자랑으로 여기지만 별거 아니다. 57년생 유혹이 많으니 절제를. 6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1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내실 수도 더 튀어나온다. 93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거래가 순조롭다.
- 개** 46년생 추분이니 조상님께 감사기도를. 58년생 오후 교통안전에 유의. 70년생 식은 죽 먹기도 쉽지만 않다. 82년생 진달래와 철쭉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산철쭉에는 독성이 있는데 사람 관계도 이와 같은 이치. 94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
- 돼지** 47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 날. 59년생 마음이 우울해도 웃어야 한다. 71년생 뒷사람의 추고는 수용하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83년생 작은 성과는 있으나 만족하지 못한다. 95년생 막상 이혼하니 배우자의 반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새마을금고, 끝 아닌 시작



기지 수첩
김 정 산 (금융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 선거가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가 끝났다. 1963년 새마을금고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직선제(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를 도입했다. 선거 당일 전국 금고는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소중한 출자금을 알뜰하게 관리할 차기 이사장을 뽑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이다.

선거가 끝난지 딱 일주일이지났다. 저조한 투표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이번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25.7%를 기록했다. 그중 서울의 투표율은 26.8%, 유권자 19만7194명 중 5만2757명이 참여했다. 무투표 당선자가 압도적인 것 또한 비

판의 대상이다. 서울 금고 192곳 중 143곳이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최종 경쟁률은 1.3대 1이다. 역대 연봉으로 잘 알려진 이사장 선거 경쟁률 치곤 낮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채신의 취지를 가지고 치른 선거의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의 비판 지점은 딱 여기까지다. 일부에선 이사장의 학력과 전문성을 놓고 쌍심지를 켜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같은 비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높은 학력과 금융권 근무 이력 여부 등이 이사장의 역량을 입증하진 않기 때문이다.

일단 새마을금고가 운영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주 고객은 유동성이 큰 주변 시장 상인이다. 실제로 지역 금고를 다녀보면 지하철역 등 편의시설과 동떨어진 경우가 빈번하다. 주로 시장이나 상가 근처에 있다. 그만큼 소

통과 일선 영업능력이 중요하다. 수도권에는 실험,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도 대거 있다. 경쟁사가 있는만큼 이사장에게는 영업력과 소통능력이 더 요구된다.

각 지역금고에는 실무책임자가 있다. 감사도 있다. 금고마다 자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학벌과 이력보다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제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사장 임기는 4년이다. 다음 선거까지 성적표 관리가 요구된다. 선거는 끝났지만, 금고 운영은 이제 막을 올렸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부실한 금고 운영이 지속되면 다음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초졸이든 석사든 박사든 중요하지 않다. 과정은 비판해도 조합원이 직접 뽑은 이사장에겐 응원을 보낼 때다. /kimsan119@



김상회의四季 인생삼락

공자는 논어에서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즉 인생삼락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오는 것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것이다. 공자가 꼽은 인생삼락은 생활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것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의 인생삼락도 공자의 그것과 비슷한 명리 공부, 상담자와의 만남으로 보람이 있는 인생삼락이다. 필자는 평생을 배우고 익히며 더 넓고 더 깊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항상 애썼다. 연관된 인문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상담자들이 필자를 찾아오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필자를 찾아온다는 건 인연이 그만큼 깊어진다는 의미다. 상담자들은 인생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한다. 좋은 해법을 얻어가는 상담자들은 다시 필자를 찾아오고 인연이 더 깊어진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명리 상담으로 힘겨운 지경을 벗어나 일이 풀리는 걸 보는 기쁨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없다.

걱정에 가득 찼던 얼굴이 가벼워지고 웃음으로 가득 차는 걸 보면 필자도 따라서 기분이 좋아진다. 명리 상담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필자 혼자 느끼는 자긍심과 보람이 더 중요하다.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보람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인생삼락이라고 할 만한 즐거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즐거움의 방법과 형태가 다를 뿐 어렵지 않은 것들이다. 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형태의 인생삼락이다. 공자의 말처럼 즐거움은 저 멀리 있지 않다. 공자의 인생삼락을 거울삼아 나의 인생삼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마을금고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3			4	6			
				5				
	5		6	1				8
	8	5		2		4		
	6		3		7	9		
4			9	7			3	
				2				
	3	2					7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마을금고의 일과를 돕기 위해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2	9	4	1	2	8	8
4	1	8	6	9	2	2	6	9
9	2	8	8	2	6	1	9	4
2	8	6	2	1	8	4	9	9
1	2	9	4	8	9	6	2	8
8	4	9	2	6	9	8	1	2
8	8	2	1	9	2	9	4	6
2	6	1	9	8	4	9	8	2
9	9	4	6	2	8	8	2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2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번호이동 가입자 7년간 나눠먹기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1140억'

SKT·KT·LG U+ 이동통신 3사
KAIT와 시장상황반 운영·담합
하루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3000여건→200건 이내로 축소
"담합 적발로 통신비 완화 기대"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특정 통신사로 몰리지 않도록 담합하다 적발돼 1000억원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 ~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액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상황반은 매일 이통3사와 KAIT 직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통3사 직원들이 2015년 11월경 각 시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또는 순감

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3사는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합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해당 이통사는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순증감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고,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한데 이어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문 국장은 "이 사건은 이통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가 426억 6200만원, KT 330억 2900만원, LGU+ 383억 3400만원이다. 과징금액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 1%가 적용됐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담합행위 과징금은 0.5%~20%까지 적용 가능하다.

문 국장은 "부과한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며 "이번 담합이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문 국장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지난 11일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을 둘러보고 있다. /aT

홍문표 aT 사장, 日서 K푸드 수출확대 점검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방문
"수출상담회·현지화 지원 등 추진"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에 조성된 한국관도 찾았다. 12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지난 11일 일본에 진출한 한국 주요 수출기업 현지법인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내 K-푸드 유통 동향과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홍 사장은 "엔저 등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을 위해 aT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을 둘러봤다. 행사장에서는 일본 최대 유통기업인 이온리테일의 총괄 바이어를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홍 사장은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냉동식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상담회, 현지화 지원, 맞춤형 마케팅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 인정해야"

권익위, 경기 광명시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광명시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 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청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삼성물산, 해외 원전사업 개발 맞손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
아시아 태평양 사업개발 긴밀협력

한수원핵심역량과 삼성물산이 협력해 해외 원전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에서 삼성물산과 해외 원전사업 개발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비투비(B2B) 협력 활용 신규 원전사업 공동 제안 ▲대형원전 주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 등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해외 신규 원전사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원전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변화하는 글



황주호 한수원핵심역량사업장(왼쪽 3번째)과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4번째)이 양사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1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해외 원전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수원

로벌 사업 환경 속에서 삼성물산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활용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전 사업관리 경험, 대형 인프라 사업수행 능력, 국제적인 네트워크 및 이해도를 갖춘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며 "양사의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혁신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과 MOU

한국폴리텍대학이 호주 최대 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협력을 강화한다.

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인 TAFE NSW(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New South Wales)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 및 교

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은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교육기관 간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 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호주 총리 "美관세, 부당·비우호적"…보복 관세는 배제
▲美벤스, '트럼프 직격' 우크라이나 북부 사촌형에 공개 대응 /사진 뉴시스

▲2월 일본 기업물가 4.0%↑…"농산물 급등 여파 확산"
▲美 교육부 트럼프 행정명령 앞두고 인력 절반가량 감축

▲'미국 안보 분야서 중국 배터리 배제 법안' 美하원 통과
▲미국·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30일 휴전안 합의… "공은 러시아로"



유통가 '빅3'
다가온 주춤시점에
사외이사 영입 '분주'
니



Life

K-바이오
올해 들어
시밀러 허가 4개
L2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등 규제철폐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서울시, 도시정비계획 변경안 발표 입체공원 사업장에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 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12일 내놴다.

우선,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고도·경관지구에 저축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이 있었던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지난 1월 20일 오전 10시 20분경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즉시 도입할 마야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았다. /서울시

이와 관련해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 관련,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 골자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최근 발표한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무단결근 교사 해임, 정당했다"

지혜복 교사, 보복성 인사 주장
시교육청 앞에서 1년째 1인 시위
업무차질에 불법시위 퇴거 요청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보한 뒤 보복성 전보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1년 넘게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 대해 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는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교사의 전보 및 해임은 적절한 행정절차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학생간 성폭력 문제를 제보한 뒤 전보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면서다. 이후 교사는 8개월간 전보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지난해

9월 해임됐다.

지난달 지씨를 비롯한 20여명의 시위대는 청사 본관 출입문을 잠그었고, 시위대 20여명이 결국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수 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지씨의 전보는 중학교 교사 전보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 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통합전보원칙은 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중학교 교사 전보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 교사는 2019년 A중학교 전보 시 이 원칙에 따라 본인이 희망한 A중학교로 전보됐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9500원으로 인상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부적합 가맹점 차단 등 관리 강화

서울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결식 우려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7346명이다. 지원 방법별로 아동 급식카드(이하 꿈나무카드) 1만5486명,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1만

1274명, 도시락·부식 배달 586명이다. 시는 '꿈나무카드'가 아동 급식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9만2000여개로, 한식·양식·중식·일식·일반대중음식·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점 등 8개 업종이며, 해당 업종의 신규음식점은 영업점을 오픈해 카드단말기 설치 시 자동으로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꿈나무카드 신규 가맹점이 자동 등록되기 전 AI가 유해 키워드를 분석해 부적합가맹점이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시는 부적합가맹점 이용 및 부정 사용 방식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상시 점검·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10만846개소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류 위주 판매 업소, 고급음식점 등 6084개소를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정책 펼친다

371억 투입, 노인 맞춤 일자리 제공 '노노케어' 등 취약 노인 돌봄 강화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대비하고, 노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고양시 역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7.3%를 차지하며, 오는 2028년에는 2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2% 증액한 37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총 2991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건강한 노인이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노노(老老)케어' 사업, 아동·청소년에게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는 '경륜전수활동', 독거노인 가정에서 식료품을 관리하는 '식품안전도우미' 사업 등을 통해 노인들이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양(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중앙대, 개인 맞춤형 전공·진로 상담 제공

전공진로가이드센터 개소

중앙대학교는 지난 10일 서울캠퍼스 204관에서 전공진로가이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공진로가이드센터는 학생 맞춤

형 전공·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설립됐다. 800여 명의 재학생들이 밀도 높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전공·진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다.

그간 전공진로가이드센터는 바깥

회를 개최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번에 센터 공간 구축이 완료되면서 보다 자유롭게 전공 및 진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향후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 지원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가이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단과대학·학과(부) 맞춤형 전공 상담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6 | 해질 / 18:37

3월 13일 (木)
음력 : 2월 14일

수도권 날씨
3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 연천 -2/14
- 동두천 0/15
- 가평 -1/14
- 파주 -2/14
- 서울 3/14
- 양평 1/14
- 인천 3/11
- 수원 2/13
- 용인 2/13
- 평택 1/14

백령도 4/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박지성 친정' 맨유, 3조7000억 쏟아 10만석 규모 경기장 신설 /사진 뉴시스
▲영3부 버밍엄 백승호, 홍명보호 합류 앞두고 시즌 첫 골

▲'이강인 연장 투입' PSG, 승부차기 끝 리버풀 잡고 UCL 8강행
▲송영진·정동윤·박종훈·김건우 4파전...SSG 5선발 오디션은 계속된다

▲'밀라노행 티켓 잡아라'...쇼트트랙 세계선수권 14일 개막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공방... '절차 하자' vs '무효 아냐'

SAMSUNG

SmartThings로 완성한 AI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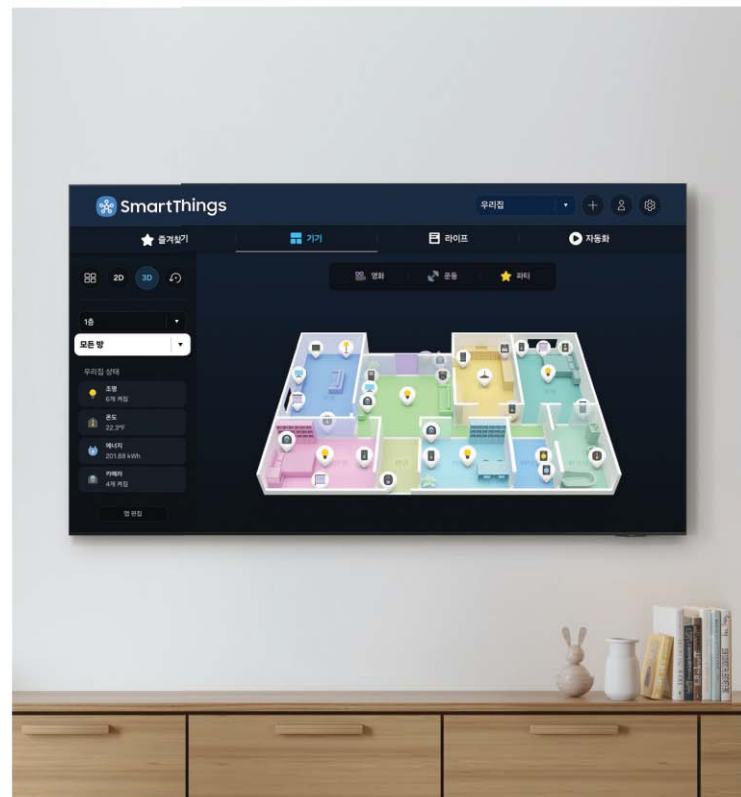
당신은 안전합니다 Knox 보안이니까

개인정보 해킹, 랜섬웨어 공격,
보이지 않는 위협 때문에 걱정 되시나요?
하지만 당신의 집과 회사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 SmartThings로 완성한 AI Home

당신과 비즈니스의 가치를
안전하게 높이는 기술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가 책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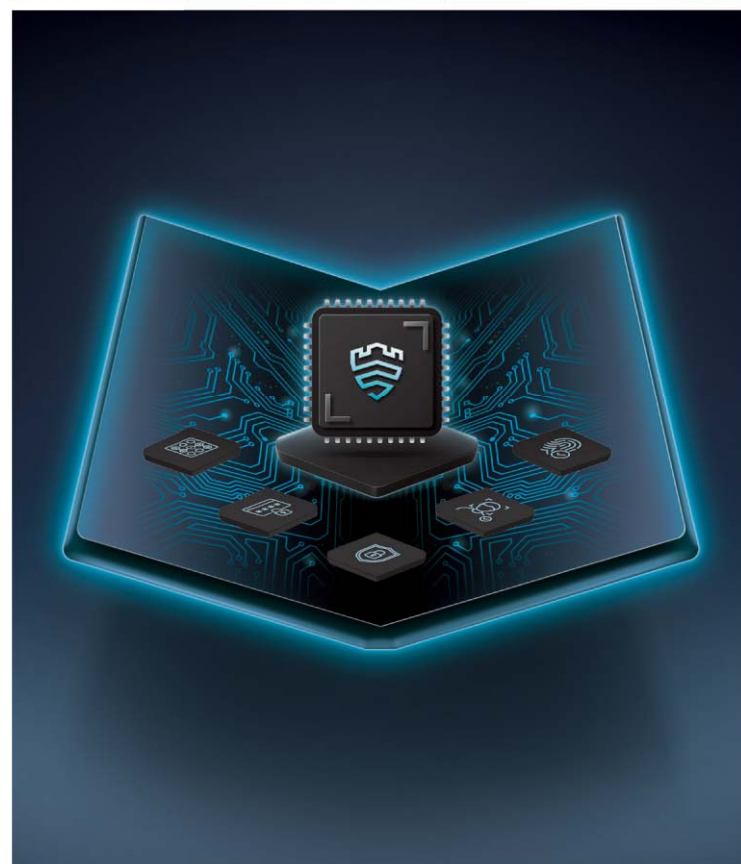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에서



Knox Matrix
높은 보안등급의
기기간 연결로
집 전체 보안 레벨 상승

Knox Vault
클라우드의 불안정성 대신
기기내 별도 장소에
고객정보 안전보관

Certified Solution
업계최초 가전 '다이아몬드'
모바일 'EAL-5+'
최고보안 등급 획득



* 'AI Home'이란 삼성전자 제품의 AI 기능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제품에 따라 AI 기능 지원 여부, 지원환경 및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계 최초 가전 '다이아몬드' 최고보안 등급 획득: UL Solutions의 사물인터넷 보안 성능 평가인 UL Solutions IoT Security Rating에서 최고 등급인 Diamond 등급 획득
* 모바일 'EAL-5+' 최고보안 등급 획득: Evaluation Assurance Level, 공통 평가 기준(Common Criteria)에 따라 평가된 보안 수준 (최근 갱신 인증 정보: CC EAL 5+, 24.5월, 5년간 유효) * 해당 지면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들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